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마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제주시 화북동 발전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노 미 경

2014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마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제주시 화북동 발전방안 연구

지도교수 양 진 건

노 미 경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노미경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4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tudy on Development Plan Research of Hwabuk-dong, Jeju, by Storytelling Strategy

Noh, Mi kyeong
(Supervised by Professor Jin-Geon Yang)

A thesis submitted i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pedagogy [professor department of storytelling]

2014.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in-Geon Yang , Prof. of Storytelling

.....

.....

.....

Noh, Mi kyeong.

2014. 2.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PEDAGOGY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국문초록】 ····· 1

Ⅰ.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 3

Ⅱ. 마을 스토리텔링 ····· 4

1. 스토리텔링의 개념 ····· 4

2. 마을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 6

Ⅲ. 화북 마을 지역 현황 ····· 8

1. 화북 마을 개요 ····· 8

2. 지정·비지정 문화재현황 ····· 10

3. 2009 화북동 역사·문화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SWOT 분석 ····· 35

Ⅳ. 화북 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 43

1. 화북 마을 스토리텔링 추진 현황 ····· 43

1)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 43

2)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사업 ····· 45

3) 마을 스토리텔링 및 UCC 공모전 ····· 47

2. 화북 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 52

1) 곤을동 마을과 용천수 개발 ····· 5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노씨부인과 모주, 마을 브랜드 상품 개발 ·····56
3) 공간 구성을 통한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61

Ⅴ. 결론 ·····70

【참고문헌】 ·····71

【Abstract】 ·····7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차

<표 1> 일련 번호 ·····11
<표 2> 화북동 일대 지정문화재 연혁과 현황 ·····12
<표 3> 화북동 일대 비지정문화재 연혁과 현황 ·····27
<표 4> 현황종합분석 ·····35
<표 5> SWOT 분석 ·····39
<표 6> SWOT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42
<표 7> 단계별 실행계획 세부내용 ·····43
<표 8> 국제 전통주 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내용 ·····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목차

<그림 1> 동마을(장머들마을) ·····9
<그림 2> 중마을(청풍마을-청풍대주변) ·····9
<그림 3> 서마을(금산마을)·····10
<그림 4> 거로마을 ·····10
<그림 5> 부록마을 ·····10
<그림 6> 황사평마을 ·····10
<그림 7> 화북동 일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분포 현황도 ·····11
<그림 8> 해신사 전경 및 해신제·····14
<그림 9> 화북진지 남/북측 성벽(상면 좌우) 및
한라장촉과 탐라순력도 화북성조 ·····16
<그림 10> 곤을동 환해장성 전경과 신설 해안도로 방파제 ·····17
<그림 11> 별도 환해장성 복원 전(1988년) ·····18
<그림 11-1> 별도 환해장성 복원 후 ·····19
<그림 12> 별도연대 전경 및 계단과 동서남북 관점 ·····20
<그림 13> 화북비석거리 전경 ·····21
<그림 14> 김정목사비 전경 및 측면 ·····22
<그림 15> 삼사석 및 삼사석비 ·····23
<그림 16> 원명 선원 전경과 석조여래좌상 모습 ·····24
<그림 17> 거로능동산방묘 원경과 근경(2011.7) ·····25
<그림 18> 김석윤 와가 ·····26
<그림 19> 화북동 윤동지영감당 외부 및 내부 ·····28
<그림 20> 화북동 가릿당 ·····29
<그림 21> 엉물머릿개 전경 ·····30
<그림 21-1> 엉물머릿당(상단 오른쪽)을 모신 곳과 현재 물이 흐르는 경로
·····30
<그림 22> 보길도에서 본 화북포구(호연금서) 및 금돈지 주변과 포구(현재)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2
<그림 23> 앞 원 전경 ·····32
<그림 24> 곤을동 마을 터 모습 ·····33
<그림 25> 인목대비 모친 유배터 전경 ·····34
<그림 26> 700년 삼별초 뱃길 탐험항해 일정 및 해신제 ·····46
<그림 27> 사랑을 걷다, 18코스 - 이인규 외, UCC 동영상 이미지 ·····47
<그림 28> 곤을동 - 고경아, 양진영 작, 삽화 이미지 ·····50
<그림 29> 단편 영상 다큐멘터리 이미지 중에서 ·····51
<그림 30> 다음 지도에서 본 화북지역(포구를 중심으로) ·····52
<그림 31> 곤을동 마을 조성 이미지 ·····54
<그림 31-1> 곤을동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55
<그림 32> 전주막걸리·모주 ·····56
<그림 33> 모주거리와 제조공장 예상지역 ·····57
<그림 34> 상업 신설 예상 지역 도면도(화북동 산업계 제공) ·····58
<그림 35> 낚배 구상도 ·····62
<그림 35-1> 조선소와 전통테우·낚배 체험장 ·····63
<그림 36> 제주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13.10 ····64
<그림 37> 바람과 어울리는 문화요소(사군자와 천연염색 천) ·····65
<그림 37-1> 곤을동에서 시가 있는 등대 가는 코스 ·····66
<그림 38> 화북포구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용천수 일부 ·····66
<그림 38-1> 포구와 환해장성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67
<그림 39> 벽화를 통한 퓨전 환경만들기 ·····68
<그림 40> 환해장성 체험현장 이미지 ·····6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마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제주시 화북동 발전방안 연구

노 미 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제주시 화북지역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이 있는 도심 속 문화지역으로 육지부와 연결하는 제주의 관문이기도 하였다. 화북포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고 가장 빨리 수용해 온 곳으로, 목사와 유배인들이 드나들었던 보기 드문 연륙교통의 중심지이다.

화북지역 문화유산의 핵심인 화북진성을 중심으로 포구, 해신사 그리고 바다를 접하며 살아왔던 생활 문화는 물론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방어유적, 목사들의 정치적인 업적을 기린 비석거리, 근현대사의 역사를 포괄하는 문화재의 산물이다.

현대에 이르러 화북동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통해 지역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문화를 보존하며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도심 속에서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화북동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도심을 자연 속으로 융화시켜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봐야한다. 화북동이 갖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요소와 현재 남아있는 20여 군데의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여 과거를 토대로 현재 과제를 고민하여 충만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남겨야함은 과언이 아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번 주제를 통해서 화북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장기개발계획과 화북진성 개발 제안 등 화북동 주민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콘텐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시 화북지역은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던 화북포구가 있는 지역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해신사, 삼사석, 비석거리, 환해장성 등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외 마을 활성화 경향을 보면 지역의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문화를 홍보함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북지역 역시 다양한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화북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를 다루고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려는 측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화북지역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화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되었던 앞선 사례들을 바탕으로 화북지역의 스토리텔링 방안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화북지역 내에 있는 역사문화 유적을 중심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도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화북동을 위해 어떤 제안을 했으며, 제안을 하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또 다른 방안들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활성화하려고 했는지 등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에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간된 <화북동 역사·문화 장기개발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화북동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SWOT[1]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는지도 함께 검토하고자한다.

Ⅱ. 마을 스토리텔링

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요한 단어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이든 성공에 가까워지려면 스토리를 담아야한다는 점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스토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야기가 연행되는 현상으로 연구 관점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으로 스토리는 텍스트와 같은 정태성에 주목하지만 스토리텔링은 상호성과 같은 동태성에 주목하므로 정태적 스토리에서 동태적인 이야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2]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Narrative)[3]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

---

1) SWOT: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여기에서는 마을환경과 문화자원을 분석함. [네이버 지식백과]

2) 서동훈·김효정.『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삼성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43집, 2009.

3) 존 실리브라운, 스티브데닝, 캐털리나 그로우, 래리 프루삭 저, 박혜원 역, 살림비즈, 2008.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이 가지는 서사성을 말한다. 스토리(story)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에는 서사의 기본 구조인 시간 순으로 연속된 이야기, 그 자체의 스토리와 작가 또는 제공자에 의해 변형되고 조작되어 원래의 시간을 초월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인 플롯(plot)[4]의 기능이 담겨있다. 이러한 스토리가 플롯화 된 담론과 이야기가 담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의 현재성, 현장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이 존재하는 것이다.[5]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의 합성이며, 이는 '모든 서사물은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과 담화라고 하는 표현을 가진 구조' 라는 주장에서 보듯이 문학이든, 시각적 작품이든 모든 서사구조를 갖게 마련이다.[6]

스토리텔링의 특성은 특수성, 연속성, 유도된 체험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특수성은 가공의 이야기 즉 실재하지 않은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요소로서, 이야기가 그 어떤 논리적 사고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연속성은 하나의 중심주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중심주제와 함께 여러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는 유기적 연결을 의미한다. 또한 유도된 체험이란 인간이 어떤 장소에서 가지게 되는 경험은 자극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극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장소 경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스토리텔링의 일반적 정의와 의미,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논의의 결과를 종합할 때, 스토리텔링은 사물이나 특정대상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요소를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반응자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의 주체(화자)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의 양상(표현)에 의해서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장소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장소에 내포되어 있는 스토리와 이를 체험하는 것이 공유되면서 하나의 장소성으로 구현되는 공유가치추구의 과정인 관념적 스토리텔링과

는 내러티브는 언어로 기술이 불가능한 '모든 종류의 서사성 전부를 포함하는 이야기'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6장. 미래기업, 통찰의 언어로 구사 하라. 1.스토리를 담은 기업이 미래를 지배 한다.] 에서는 "스토리텔링은 신속하고 강력하다, 스토리텔링은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기술은 쉽게 개선된다, 내러티브는 자연스럽고 협력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그리고 설득력있게 전체적으로 전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

4) 플롯의 번역어로 '구성', '구조' 등이 있기는 하나 '구성'이 더 일반화되어 있다. 플롯의 어원은 아리스트텔레스의 『시학』에 나와 있는 미토스(mythos)에서 찾는다. 미토스는 플롯과 동시에 이야기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자료원.

5) 김기국.『인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6) 김정미,『미디어에 따른 스토리텔링의 의미변화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스토리체험 과정 중에 스토리텔러적인 입장에 관심을 가진 기능적 스토리텔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야기는 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 청자와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꾀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통과정은 인간의 감각과 정보의 채널을 끊임없이 연장하면서 발전해온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다. 화자는 특정매체를 통해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청자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의미생성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재해석과 함께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의사소통과정에서 연상이라는 작용이 필요한데 연상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는 이미지의 수용과 도출의 정신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공간지각 특성의 저변에는 과거의 경험, 교육에 대한 기억이 존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내부의 인지체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여 공간지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은 환경 속에 존재하며, 환경의 특정 부분에 따라 직접적 또는 연속되는 순서,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장소들 가운데 하나인 부분적인 장소를 경험하게 된다.[7] 이러한 경험은 공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며, 최종적으로 종합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때, 연속적 경험은 전 단계 경험이 지금 단계에 이어짐으로써 전체적인 경험의 과정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경험은 연상 작용의 필연적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2. 마을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경쟁력은 이야기에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친 스토리텔링의 열풍은 관광분야는 물론 마을 꾸미기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스토리텔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그 주제가 스토리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개발 또는 마케팅전략의 수단으로서의

7) 오지헌·김억,『건축설계를 위한 '연속적 공간'과 인간의 공간지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접근이 일반적이다.

농촌이나 산촌의 경우는 점차 매력을 잃어가는 대중관광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인에 있어서 전통적인 삶의 터전이자 정신적 고향으로서,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촌의 공동체와 정서를 경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는 등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 대안으로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마을 고유의 장소성을 회복하고, 관광의 대상인 도심이 아닌 농촌(산촌/어촌)마을에서의 감성적 체험의 극대화 및 방문객의 동기 부여를 위해, 농촌관광마을에서의 물리적 환경 및 공간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스토리텔링의 적용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을 스토리텔링[8]은 지역의 문화를 물리적, 인문·사회적 자원을 총괄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시간과 공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일종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아니다. 재미를 유도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득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재 공간에 멈춘 문화,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현존하는 사람들과 공존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마을 스토리텔링으로 얻어지는 콘텐츠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 목적과 방법이 있는 섬세한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한다면, 국가, 민족, 인종,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그 감성적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을을 홍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요소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

8) 이병훈, 『농촌관광마을의 스토리텔링 구현을 통한 장소성 확보』, 계명대학교대학원, 2010.12
"농촌마을 고유의 장소성을 회복하고, 관광의 대상인 농촌마을에서의 감성적 체험의 극대화 및 방문객의 동기 부여를 위해, 농촌관광마을에서의 물리적 환경 및 공간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스토리텔링의 적용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에서의 장소성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농촌마을이라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장소성 확보를 위한 방법과 대상지에 잠재되어진 스토리와 관광객의 장소성 인식을 위한 스토리텔링 구현 방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농촌관광마을의 스토리텔링적용을 위한 개념적 전략을 도출하여, 이를 연구대상지에 적용하여 장소성 확보를 위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농촌관광마을에서의 장소성 확보는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전통문화의 보존을 통한 감성적 체험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므로, 스토리텔링의 방법적 모색을 통해 기존 농촌 관광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구축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심 속 마을로서는 어촌에 근접해 있고, 행정구역상 농촌의 영향이 있는 화북지역은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아직 현존하고 보존가치가 높아 훌륭한 장소 자산으로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의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주시 화북지역에 잠재된 스토리를 발굴하고, 농촌마을의 장소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장소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스토리텔링 방법을 농촌문화관광마을[9]에 적용하여, 장소성 확보를 위한 공간구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화북 마을 지역 현황

1. 화북 마을 개요

화북동은 현재 제주시에 속한 19개의 행정 동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제주시의 구시가지중심부에 해당하던 관덕정 일대로부터 동쪽 5㎞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 경계가 동쪽은 제주시 洞 지역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자리 잡은 삼양동, 서쪽

9) 이병훈, 『농촌관광마을에서의 스토리텔링구현 전략-요약』, 대한관광경영학회, 2012년.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스토리텔링이 부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농촌관광마을에 구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기법을 도출하는 중점을 두었다. 농촌관광마을은 전통적 농촌마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전통마을에서의 공간적 입지구성요소와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우선 파악하였다. 더불어 스토리텔링과 연관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요소들을 추출함으로서 농촌마을의 물리적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의 연출 또는 구현방법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스토리텔링은 관광뿐만 아니라 유사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공히 기-승-전-결의 구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속성과 동선체계, 위계, 감춤과 드러냄, 틀, 수사적 기법에 의한 명명과 같은 방법론적 요소는 스토리텔링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와 원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농촌관광마을에서의 스토리텔링의 구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휴먼스케일에 입각한 물리적 공간에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청자 스스로가 대상의 의미를 읽어내는 또 다른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건입동과 이도동, 남쪽은 아라동과 접하며, 북쪽은 바다와 닿는 해안지대이다.

화북 지역은 1678년 화북진성의 축조 이후 마을이 별도포구 중심으로 계속 규모 확대가 이루어져 나아가 18세기 초 이전부터는 이미 촌, 혹은 리(里) 단위의 행정적 편제가 이루어질 정도에 달했다. 그래서 18세기 초 이전부터 거로촌·부록리·별도포리 등과 같이 행정적 편제가 이루어진 마을, 혹은 '고놀개' 마을과 같이 자연마을 등이 화북동 지역에 들어섰고, 그것이 18세기 후반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아갔다.

1931년에 와서는 화북리가 제주면의 제주읍 승격에 따라, 제주읍에 속하게 되었다. 1955년에 이르러서는 화북동이 제주읍의 제주시 승격과 시제(市制) 실시에 따라, 화북1동과 화북2동으로 분화됨과 동시에, 다른 23개 리 마을과 함께 제주시 소속 40개 동(현재 제주시의 법정동 40개와 일치함)의 하나로서 각각 편입되었다. 그리고 1962년에 와서는 제주시의 40개 동이 14개 행정동으로 축소되는 개편이 일어났다. 이때 화북1동과 화북2동도 하나로 통합되어 화북동이라 일컬어지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10]

현재 화북동 지역 가운데 화북1동은 동·중·서마을 등으로 구분되어 파악되고 있다. 즉, 동마을은 화북 1동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삼양3동과 경계가 되는 해안마을로서 일명 장머들 마을이다. 중마을은 화북 중심부 일대로서 화북진성의 남쪽에 자리 잡은 일명 청풍마을이다<그림 1>, <그림 2>.

<그림 1> 동마을(장머들마을)

<그림 2>
중마을(청풍마을-청풍대주변)

서마을은 화북포구 위치의 해안마을로 화북천을 끼고서 가장 서쪽에 입지한 일명 금산마을 등을 일컫는 것이다. 화북2동의 경우는 거·부록·황사평마을 등

10) 화북동운영위원회, 『화북동향토지』, 199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다<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3> 서마을(금산마을)

<그림 4> 거로마을

<그림 5> 부록마을

<그림 6> 황사평마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된 상태이고, 화북항 개발사업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화북 상업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차후 인구유입으로 인해 마을의 규모가 현재보다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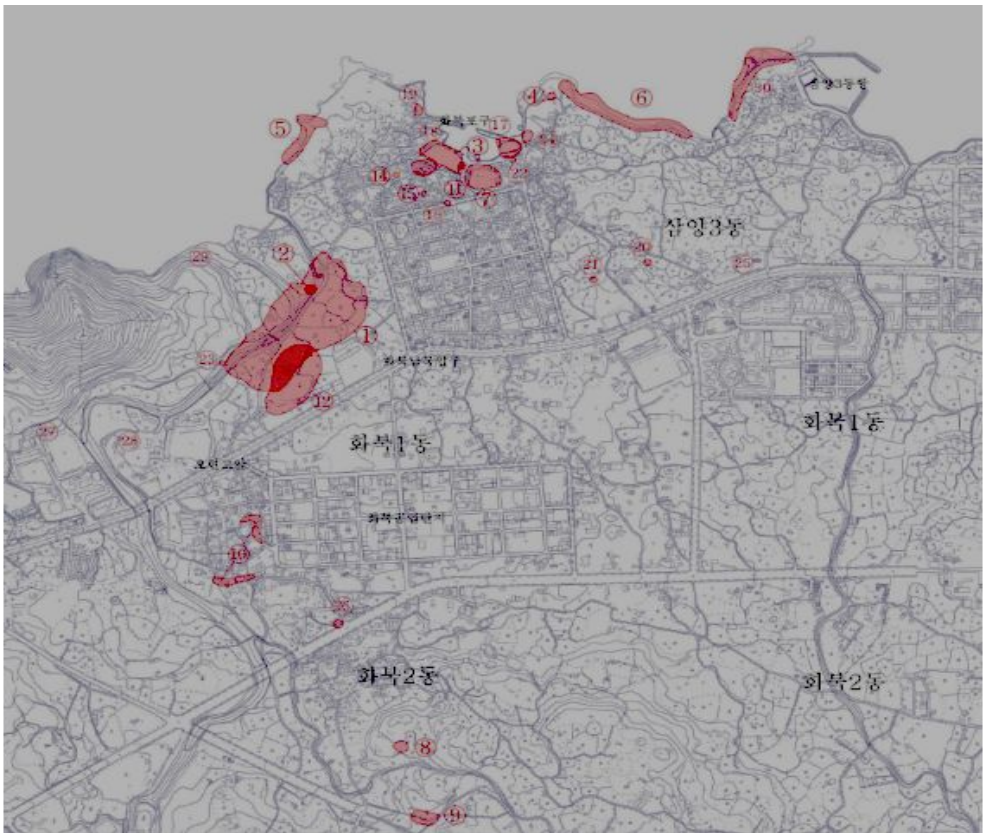
2.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1) 지정 문화재 현황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역사문화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인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화북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의 현황은 다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같다<표 1>, <그림 7>.



<그림 7> 화북동 일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분포 현황도

<표 1> 일련 번호

1	영송정터	2	화북비석거리	3	김정목사봉비	4	별도연대	5	곤을동환해성
6	별도환해장성	7	화북진지	8	거로능동산방묘	9	소림사지	10	거로마을4·3성지
11	해신사	12	탐라시대유적지	13	동제원터	14	이기숙와가터(멸실)		
15	김용일와가	16	김석윤가옥	17	엉물머릿개	18	옛 화북포구 금돈지		
19	앞원	20	윤동지영감당			21	가릿당	22	엉물머릿당
23	베릿내소낭알당(멸실)			24	대명원	25	삼사석과 삼사석비		
26	인목대비 모친 노씨			27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28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29	곤을동마을터	30	삼양환해장성		

일련 번호 중에 화북지역 일대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1건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9건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인 탕건장을 비롯하여 해신사, 화북진지 등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화북지역 일대의 지정문화재 현황은 다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같다.

<표 2> 화북동 일대 지정문화재 연혁과 현황

자원명	위치(번지)	시대	자원현황
탕건장	화북동 1665	-	중요무형문화재(국가 지정) 제67호(1980.11.17.) 김공춘
해신사	화북동 1621	조선후기 (1820년, 순조20년)	도 기념물 제22호(1973.4.3.) 해신사
화북진지	화북동 5761외 14필지	조선후기 (1678년, 숙종 4년)	도 기념물 제56호(2001.2.21.) 방어유적
곤을 환해장성	화북동 4363 외 10필지	고려~ 조선시대	도 기념물 제49-1호(1998.1.7) 방어유적
별도 환해장성	화북동 1533-1 외 16필지	고려~ 조선시대	도 기념물 제49-2호(1998.1.7) 방어유적
별도연대	화북동 1537	조선시대	도 기념물 제23-9호(1996.7.18) 방어유적
화북 비석거리	화북동 3957-1 (5755)	조선시대	도 기념물 제30호(1976.9.9.) 선정비 13기
삼사석	화북동 5749-61 외 3필지	탐라시대/조선시대	도 기념물 제4호(1971.8.26.)
거로 능동산방묘	화북동 3401 외 3필지	조선초기	도 기념물 제60-4호(2008.4.18.) 옛무덤, 성주묘(방형석축토광묘)
김석윤 기와집	화북동 1933-9	1913년 건축물	도 민속자료 제4-1호(1978.11.14.) 민가, 와가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화북동 4684번지	조선후기	도 문화재자료 제10호(2008.12.2.) 원명선원, 불상

(1) 탕건장

조선 초기 탕건은 망건과 함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감싸고 상투를 가리는 기능과 더불어, 그 위에 얹어 쓰는 갓의 밑받침으로 사용되었다. 탕건은 제주에서 생산하는 말총과 정술 등의 가는 실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줄살린 탕건·막불탕건·주진 탕건 등은 상품, 중탕건은 중품, 엉금탕건은 하품으로 구분하였다.

탕건은 관직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망건 위에 썼으며 관직자가 평상시에 관을 대신하여 주로 사용하였다. 속칭 감투라고 하여 벼슬에 오르는 것을 일컫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감투 쓴다’는 표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탕건 짜는 일은 1980년 김공춘 님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으로 지정되었고, 뒤를 이어 김혜정(김공춘 님의 딸)이 1987년 전수조교로 인정되어 현재 외손녀도 뒤를 이어 3대에 걸쳐 탕건의 맥을 잇고 있다.

(2) 해신사

해신사는 바다의 신인 선왕신[11]을 모시는 신당이다. 화북포구를 오가는 배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용왕제를 드리기 위해 세운 곳으로 1820년(순조 20년) 한상묵 목사가 축조하였고, 1841년(헌종 7년) 이원조 방어사가 건물을 보수하였다. 1849년(헌종15년) 장인석 목사가 ‘해신지위(海神之位)’라고 비석을 새기고, 매년 정월 초 6일에 제사하는 것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다.

『탐라지』[12]에 의하면, 해신사는 원래 화북진서라 해서 서마을 큰짓물 서남동산에 있었다. 해신사는 정면 측면 단칸으로 된 비각 건물로, 각주로 장혀와 도리를 받치고 5량조로 결구하여 바로 서까래를 얹어 합각지붕으로 품위를 갖추었다. 하부에만 심벽을 치고 외부로 돌담을 둘러쌓고, 상부에는 살창을 세워 모로단청으로 마무리 했으며 전면에는 판문을 달았다. 밖으로는 겹담장으로 사방을 둘러쌓고 일각대문을 달았다.

해신제는 1820년경부터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현재는 화북동 마을 차원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제로 바뀌었다. 해신제의 제관은 삼헌관과 집

11)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 마을에서 멸치잡이의 풍어를 비는 굿. 해마다 늦봄이 되면 멸치 떼가 제주도 연안에 몰려들기 시작해 이때가 되면 모래밭이 있는 해안 마을에서는 지인망(물가에 긴 그물을 둘러쳐서 양 끝에 줄을 연결하여 육지에서 끌어당겨 어획하는 도구)으로 멸치 떼를 끌어당겨 잡는다. 이의 풍어를 비는 굿이다. ‘그물코스(그물고사)’ 또는 ‘멜굿(멸치굿)’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물고사 또는 멜굿(멸치굿)은 옛날에는 심방을 빌려 굿으로 해 왔고, 그 후 유교식 제법으로 바꾸어 전해 오다가 1970년대부터 멸치 떼가 몰려오지 않아 지인망어업(地引網漁業)이 없어지면서 제의도 소멸되었다. 굿으로 할 때는 그 이름을 ‘그물코스’ 또는 ‘멜굿’이라 했고, 유교식 제법으로 바뀌면서 ‘해신제(海神祭)’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해신사에 모신 해신은 배를 타고 육지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해상사고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해신은 마을 사람들이 해신당에 모시는 요왕신·선왕신, 해녀들의 바다밭[海田] 경작을 돕는 요왕신, 어부들의 배가 잘되어 만선풍어가 되게 해주거나 멸치잡이의 만선이 되게 해주는 선왕신(도깨비)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문무병,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편), 제주해신제』, 제주교육박물관, 2009.

12) 1653년(효종 4) 이원진(李元鎭)이 편찬한 전라도 제주목·정의현(旌義縣)·대정현(大靜縣)(지금의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읍지. 1책. 목판본. 제주목사 이원진이 편찬하고 제주도의 석학인 전적(典籍) 고홍진(高弘進)의 감교(監校)로 완성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례, 대축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제사일은 음력 정월 5일이다. 해신사에는 아래와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과거 화북포는 들어오는 항로에 모래가 많아 수심이 얕아 선박 출입이 불편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탄 배가 이 항구로 들어오던 중 풍랑으로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자 바다 속에서 뱀이 나와서 선체의 터진 구멍을 막아주어 간신히 화북포에 상륙하였다. 그 뱀을 따라가 보니 ᄀᆞ으니ᄆᆞ루 서쪽 석간굴로 들어갔다. 목사가 신기하게 여겨 이곳에 해신사를 짓고 매년 1월 6일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제주목사가 도임하여 들어올 때는 화북포로 들어와 배를 대고 해신사에 열명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림 8> 해신사 전경 및 해신제[13)]

(3) 화북진지

제주의 대표적 해군기지였던 화북수전소(禾北水戰所)는 명종 10년(1555) 6월 왜구의 침입에 의해 격파되었다. 이후 화북수전소를 방어할 진성축조가 논의되어, 숙종 4년(1678)에 목사 최관(崔寬)이 화북진성을 쌓았다. 둘레 606척, 높이는 11척으로 동문과 서문이 있었다. 성 안에는 진사 3칸, 공수 3칸, 사령방 1칸, 마

13) 구글 홈페이지에서 해신사 이미지 검색, https://www.google.co.kr. 연합뉴스 참고(2012. 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방 4칸, 무기고 등이 있었으며, 많은 무기로 중무장했다. 화북포(浦)는 제주목의 내륙 출입포구였기 때문에 왕명을 받든 사신을 환송, 접대할 시설이 필요했다.

탐라순력도[14]에는 숙종 25년(1699)에 남지훈(南至薰) 목사는 환풍정(喚風亭; 3칸의 객사)[15]을 건립하였고, 북성 위에는 망양정(望洋亭)[16]을 두었다. 화북포가 얕고 비좁아 배 출입이 불편했기 때문에 영조 11년(1734) 김정 목사는 직접 부역을 독려해 길이 210척, 넓이 21척, 높이 13척의 방죽을 쌓고 그 위에 영송정(迎送亭)[17]을 지어 공사 선박 출입의 검문소로 삼았다. 그러나 김정 목사는 같은 해 9월 객사 환풍정에서 사망하였다. 방파제 인접한 곳에 관민이 애도의 뜻을 담은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화북진[18]은 동서로 120m, 남북으로 75m 크기이고, 성체는 대략 1/2정도 남아

---

14) 1702년(숙종 28) 10월 29일, 화북진에 소속된 성정군의 군사훈련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당시 화북진의 조방장은 이희지이며 성정군의 규모는 172명, 군대의 점검과 아울러 군기의 수효도 일일이 확인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다. 성의 좌측에는 화북진에 소속된 별도연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화북진의 자세한 지형과 화북성의 위치, 성 내의 건물배치 뿐만 아니라, 민가의 위치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화북진은 타원형의 성으로 동·서로 문이 있다. 성문은 1간의 루가 있는 우진각 초가다. 성문에는 옹성이 있고, 성벽 위에 여장이 축조돼 있다. 성 안의 동문과 서문 사이 중앙에는 남쪽에 큰 마당을 두고 객사가 있다. 좌우에는 군기고로 보이는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건물들은 따로 쌓은 담장 속에 있으며 객사 쪽으로 출입구를 두었다. 화북진성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화북마을 모습이 상세하다. 화북진성 바로 남쪽에 '별도포리(別刀浦里)'라는 마을 이름이 선명하다. 민가의 분포는 동쪽의 별도연대와 서쪽의 별도포구가 끝나는 지점까지 비교적 골고루 퍼져있지만, 연대 서쪽과 화북진성의 동문 지점 그리고 별도포의 안쪽 가장자리를 에워싸는 부근에 특히 많이 나타나 있다. 별도포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제주도의 관문적 성격을 띠는 포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별도포(別刀浦)는 '벨돗개'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금의 화북1동 포구를 이른다. 별도포리(別刀浦里)는 '벨돗개ᄆᆞ을'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금의 화북1동을 이른다.

15) 『배비장전』에는 배경이 되는 제주도의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화북진지의 환풍정을 언급했다. 배 비장 일행이 겨우 풍랑을 뚫고 도착한 곳은 환풍정(喚風亭)이었다. "환풍정 배를 내려 화북진(禾北鎭)에 당도하여 사면을 둘러보니 제주가 십팔경(十八景)이라. 제일경은 망월루(望月樓)인데 망월루 살펴보니……"라며 제주도 화북 포구 일대를 소개하고 있다. 또 "영무정(永舞亭) 바라보고 산지(山芝)내 얼핏 건너 북수각(北水閣) 지나 놓고 칠성(七星)골 너른 길로 관덕정(關德亭) 돌아들 때……"라는 등 주인공의 동선(動線)을 따라 각 지역을 기술하여 소설의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유배의 땅 제주도, 『배비장전』의 무대가 되다 - 배비장전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개정증보판 2005, 2쇄 2013, 돌베개)

16)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 경상북도(慶尙北道) 울진군(蔚珍郡) 근남면(近南面) 산포리(山浦里)의 동해안(東海岸)에 있는 정자(亭子) 로 유명하나 여기에서는 화북진성에서 바라다보는 화북포구의 관활함과 적국의 침임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설치함.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탐라순력도), 2006, 한국콘텐츠진흥원

17) 사신 및 목사들을 맞이하고 보냈던 곳으로 제주의 관문의 역할과 그 당시 검문을 통해 통제의 기능을 했다.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탐라순력도), 2006, 한국콘텐츠진흥원

18) 화북진은 한라장촉에도 언급이 되어있듯이 1702년(숙종28) 4월 15일, 당시 제주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그림으로 제주도의 경계는 시대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이 그림상으로는 삼읍(三邑:제주목·대정현·정의현) 관아의 위치와 9개 진(鎭)의 위치 즉, 화북진·조천진·별방진·수산진·서귀진·모슬진·차귀진·명월진·애월진의 소재지를 적색으로 표시하여 선명하게 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으며, 성문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화북진은 북측 성벽의 일부와 서측 성벽이 잘 남아 있어서 성의 축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측 성벽은 민가의 울타리를 겸하고 있어서 훼손이 크고, 남측 성벽은 1970년대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소실되었다.

<그림 9> 화북진지 남/북측 성벽(상면 좌우) 및 한라장촉과 탐라순력도 화북성조

(4) 곤을동 환해장성

제주시 화북동 곤을마을 바닷가에도 환해장성이 있다. 현재 140여m 정도가 남

러나도록 하였다. 한양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작성한 터라 남과 북의 방향이 바뀌었다.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탐라순력도), 2006,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 있다. 형태는 단일경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궁형(弓形)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사가 원만하고 돌의 크기도 별도 환해장성보다는 작고 둥근 편이다. 안쪽의 경우는 후대에 밭으로 조성하면서 매립한 흔적이 있고 원래의 지표면은 바다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밖은 현무암 암반으로 되어 있다. 높이는 3m에 이르고 있는 곳도 있으며, 너비는 위쪽이 1m, 아래가 1.8m 정도이다. 지금은 황해장성 멸실 구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도로건설로 방파제가 생겼다.

<그림 10> 곤을동 환해장성 전경과 신설 해안도로 방파제

(5) 별도 환해장성

환해장성은 일명 '고장성', '장성', '해안성담' 등으로 부르며, 크게는 해안을 전체적으로 둘러친 3백리(120km) 장성으로 '제주의 만리장성'으로도 일컫는다.[19] 1270년인 고려 원종 11년에 삼별초[20]가 진도를 근거지로 삼자 나라에서 시랑(侍郎) 고여림(高汝林)과 영암 부사 김수(金須)를 보내어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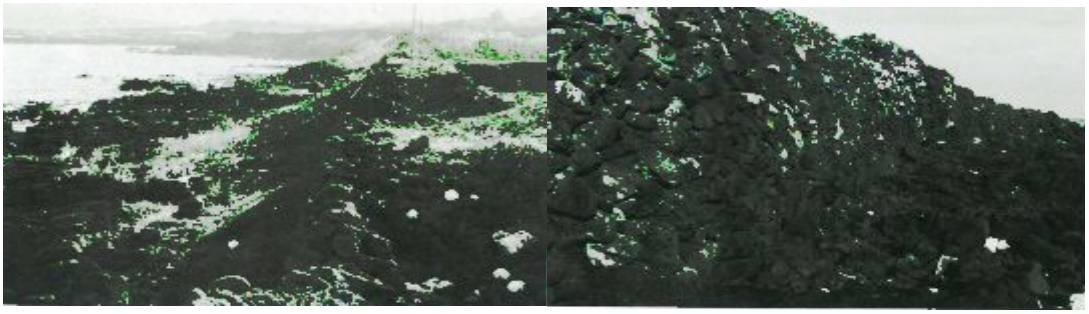
19) 제주도 연안의 해안선을 따라 빙 둘러 쌓은 긴 성으로 길이가 약 300여 리에 이른다. 제주도는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들이 상륙하기 좋은 곳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방비로 해안선의 접안할 수 있는 곳을 돌아가면서 돌로 성(城)을 쌓았다. '고장성(古長城)', '장성(長城)', '해안성담'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환해장성(環海長城)'은 말 그대로 해안을 둘러쌓은 성담이다. '환해장성環海長城'이라는 명칭은 『탐라기년(耽羅紀年)』(김석익, 1918년 편찬)에서도 언급했다.

20) 고려시대 경찰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의 명칭이다. 최씨 정권의 최우(崔瑀) 집권기에 나라 안에 도둑이 들끓자 용사(勇士)를 모아 매일 밤에 순찰, 단속하게 하여 그 이름을 야별초(夜別抄)라 하였다. 도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야별초를 나누어 이를 잡게 하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많아지므로 이를 나누어 좌별초와 우별초라 하였다. 또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온 자들로써 편성된 신의군과 함께 삼별초(三別抄)라 하였다. 삼별초의 정확한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에 보면, 야별초에 대한 기록은 1232년(고종 19) 처음으로 보이고 신의군 및 좌별초·우별초에 대한 기록은 1257년(고종 44)과 1258년에 각각 처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야별초의 설치는 최우 때라 할 수 있지만, 삼별초로 형성된 것은 최씨 정권 말엽이라 하겠다. 별초라는 임시군대의 편성은 이미 1174년 조위총의 반란 때 나타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장성을 쌓아서 삼별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리어 삼별초가 들어와서 방어하는 성벽이 되었다.

김상헌이 지은 『남사록』[21]에 "왜적들이 그렇게 여러 번 쳐들어왔는데도 한 번도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온 섬을 둘러싼 석벽(石壁)이 바닷 속에 깔려 있는 천연의 요새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기록했고, 김성익의『탐라기년』에도 그와 비슷한 글이 있다.



<그림 11>별도 환해장성 복원 전 모습(1988년)

21) 1669년경에 간행된 조선 중기의 문신 김상헌의 제주 기행문으로 1601년(선조 34) 7월에 제주에서 발생한 '길운절 소덕유 역모사건'으로 인한 불안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제주안무어사로 파견된 김상헌이 제주목사 성윤문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남사록』에는 조정을 출발하여 제주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한양과 제주 간의 노정을 헤아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제주·정의·대정 삼읍의 지지(地誌) 및 주요 관아의 위치와 방호소, 과원 및 귤의 품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많은 문헌 자료를 참고하면서 자신의 견해도 나타내고 있어 당시 제주도의 전체적인 사회상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효종 4년(1653)에 쓰여진 『탐라지』보다 50여 년이 앞선 제주도의 전반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11-1> 별도 환해장성 복원 후 모습
길이 620m, 높이 2.5m, 폭 1.2m(상단 좌우, 왼쪽 세로 사진, 2007년 복원)

(6) 별도연대

화북진에 소속된 별도연대(일명 화북연대)[22]는 화북동 동쪽 환해장성 곁 연대

22)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별도봉수(別刀烽燧)는 “서쪽의 사라악에서 받아 동쪽의 원당악에 응답한다(西應沙羅岳 東應元堂岳)”고 하였으며, 『탐라방영총람』에서는 별도연대(別刀煙臺)는 “본주로부터의 거리는 동쪽으로 십일 리인데 화북진에 소속되었다. 별장 한사람이 번을 서는데 매월 초닷새에 교대한다. 연군은 12명인데 2명은 매월 초닷새에 교대한다.(自州東距十一里 禾北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하였다. 또『제주병제봉대총록』에서는 별도연대(別刀煙臺) “동쪽으로 조천에서 받아 서쪽의 수근에 응답하는데 별장이 6명이고 직숙하는 군사가 12명이다.(東應朝天 西應修近 別將六人 直軍十二名)”라고 기록되었으며, 『제주읍지』에는 별도연대(別刀煙臺) “동쪽으로 조천에서 받아 서쪽의 수근에 응답하는데 화북진 소속이고 별장은 6인이고 직숙하는 군사는 18명이다.(東應朝天 西應修近 禾北所屬 別將六人 直軍十八名)”라고 『제주대정정의읍지』,『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등에 기록되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동산에 있다. 별도에는 예전에 봉수가 있어서 서쪽으로는 사라봉수[23], 동쪽으로는 원당봉수[24]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효종대 이후 별도연대로 바뀌면서 서쪽으로는 수근연대, 동쪽으로는 조천연대와 연락을 취했다.

<그림 12> 별도연대 전경 및 계단과 동서남북 관점

(7) 비석거리

제주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화북 마을 도로변에 13기가 군(群)을 이루어 세워져 있다. 이곳에는 헌종 14년(1848) 3월에 부임했던 장인식 목사를 비롯해 목사와 판관, 찰리사, 조방장 등의 비석들이 세워져 있다. 또한 현재 화북의 옛 지명인 별도와 공북이라는 마을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화북포구를 이용했던 목사들에게 화북 주민들이 세워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석들의 비문에는 제주를 떠나는 관리들이 자신의 공적을 미화해서 과시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한편, 현재 화북비석거리의 비석들은 원래의 위치에서 옮겨 올 때 그 순서를 바꿔 세워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

23) 사라봉수는 제주의 관문인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사라봉의 북쪽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라봉수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다. 다만 1987년에 축조한 연대만 있다.

24) 제주시 원당봉에 위치한 조선 시대 위급을 알리던 원당봉수대로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원당봉수대에서는 동쪽으로 서산(西山)봉수대, 서쪽으로 사라봉수대와 교신하였다. 원당봉수는 조천연대와도 교신하였다. 제주도 내에는 25개의 봉수대와 38개의 연대가 설치되어 유사시의 통신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평시에는 한 번, 적선이 나타나면 두 번, 해안에 접근하면 세 번, 상륙 또는 해상 접전하면 네 번, 상륙 접전하면 다섯 번 봉화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봉수는 전국을 5개선으로 연결해 서울 목멱산으로 집결됐는데, 제주도는 다섯 번째 선으로서, 제주도에서 추자도, 전라남도 해안을 거쳐 가게 된다. 봉수대마다 망한, 또는 별장과 봉군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봉수가 있는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되었다고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3> 화북비석거리 전경

(8) 화북포구 김정목사봉정비(牧使金公汀政 奉□□碑)

화북포구 앞쪽, 화북진성 북쪽, 해신사 동편에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제주목사 김정은 영조 11년(1735) 4월에 부임하고, 동왕 14년 9월에 화북관에서 사망하였다. 제주에 부임해 와서 흉년을 만나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삼천서당[25]을 세워 서민자제의 교육을 진흥시켰다. 객사의 존경각[26]과 연교정[27]을 건립하였고, 삼읍·9진의 병기를 수리하여 변방의 방어에도 주력하는 한편, 화북포구의 축항공사를 진두지휘하여 제주 해상교통의 활로를 개척하였다.

25) 1736년(영조 12)에 세운 서당이다. 제주 전 지역의 선비가 이곳에서 글공부를 하였으며, 김정이 비용을 내어 후진들도 양성하였다. 1893년(고종 30)에 김정을 기리어 김정흥학비를 세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421번지에 있는 오현단(五賢壇)에 남아 있다. 이원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26) 1475년(성종 6) 성균관 안에 건립된 도서관 건물로 정의되나 동일한 명칭으로 유생들이 학문연구한 교육시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7) 연교정은 제주목사 김정이 1737년(영조 13)에 세운 누각으로, 임금의 교서를 받들고 전문(箋文)을 올릴 때에 그 의식을 행하던 곳이다. 전문은 길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지방관이 왕에게 아뢰는 사륙 문체의 글을 말한다. 정조의 대전탄일(大殿誕日)에 지방관이 축하하는 전문을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당시 이 건물을 세웠던 김정의 상량문이 남아 있다. 김정의 상량문을 토대로 이 건물을 복원할 수 있다면, 제주에 대한 지방 관리들의 인식과 그 인식이 제주 지역민에게 미친 관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적이 될 것이다. 이원조,『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4> 김정 목사비 전경 및 측면

(9) 삼사석과 삼사석비

삼사석은 제주 삼성(三姓)의 시조 신화[28]이자 개국신화의 성격을 띤 삼성신화와 관련된 유적이다. 탐라국의 개국신화에 따르면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삼신인이 '毛興穴'(모흥혈)에서 솟아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수렵생활을 하던 중 지금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연혼포에 떠 내려온 벽랑국(碧浪國)의 삼공주(三公主)를 맞아 혼인지에서 혼례를 올리고, 각기 활을 쏴서 살 곳을 '一徒', '二徒', '三徒'로 정했다. 당시 살 곳을 정하기 위해 쏜 화살이 꽂힌 돌을 '삼사석'이라 한다.

영조 8년(1735) 제주목사 김정이 삼사석 유적을 돌아보고 삼사석비를 세웠으며 순조 13년(1813) 제주 유림인 양종창(梁宗昌)이 화살 맞은 돌을 수습하여 석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그 후 헌종 6년(1840)에는 제주목사 김정이 세운 비석이 100여 년 지나면서 마모되자 개수했다.

28) 제주도의 고(高)·양(良:뒤의 梁)·부(夫) 삼성 씨족의 시조신화. 탐라(耽羅)의 개국신화이기도 하다. ≪고려사≫ 권11, ≪동국여지승람≫·≪탐라지 耽羅志≫·≪영주지 瀛洲志≫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구전하는 무가나 전설로도 제주도에 전승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5> 삼사석 및 삼사석비

(10) 원명선원(圓明禪院)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조선후기에 조성된 불상이다. 먼저 응회암[29]으로 추정되는 돌을 이용하여 조각한 다음 그 위를 금으로 도금하여 만든 것이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불상들은 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지만, 이 불상처럼 돌로 만들어진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전체적인 신체의 비례에 비해 머리·손·코가 다소 크게 표현되어 있어 둔중한 느낌을 주는 불상이다. 나발(螺髮)[30]이 촘촘하게 자리하고 있는 머리는 둥글어서 부처의 살이나 머리뼈가 튀어나온 모습인 육계(肉髻)와 구별되지 않는다. 머리 중간과 정상에는 각각 반달 모양의 계주와 원통 모양의 계주가 자리하고 있다. 약간 숙인 얼굴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턱과 뺨을 둥글게 다듬어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여기에다 지긋이 반쯤 감긴 눈과 엷은 미소를 머금은 입이 잘 표현되어 불상의 얼굴에는 자비로움이 가득하다.

옷은 양 어깨를 모두 덮는 방법인 통견으로 입었다. 겉에는 18세기의 다른 불

29) '구멍이 많은 암석, 화산 분출물로 된 암석'을 뜻하는 라틴어 tofus에서 유래. '재(화산재)가 굳어서 된 암석'을 뜻한다. 화산재는 일반적으로 2mm 이하의 직경을 가진 화산 분출물이다. 건물 벽 재료, 토목건축 재료, 시멘트 원료로 사용된다. 기본 광물·암석 용어집, 2010.11.15, 한국학술정보(주).

30) 나계(螺髻)라고도 한다. 부처의 모습은 인간의 몸매와 다른 데가 있어 그것을 보인 것이 삼십이상 팔십종호(三十二相八十種好)인데, 그 가운데 머리카락은 청유리색(青瑠璃色)에 우선(右旋)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조각에서는 고둥과 같은 입자(粒子)로 표현되어 나선상(螺旋狀)으로 금이 가 있는 일이 많다. 이러한 형태의 머리를 나발이라고 하는데, 청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군청(群青)으로 채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징은 여래상(大日如來는 제외)에 한정되고, 보살의 경우 보통의 머리로 틀어올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들처럼 무겁고 두터운 大衣를 걸치고, 그 안에 복부를 가리는 속옷인 승기지(僧祇支)를 착용하였다. 결가부좌한 발목사이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 바닥에 이르러 가지런하게 정돈되었다. 옷주름은 볼륨감이 낮고 표현이 간결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준다. 양 손은 다섯 손가락을 편 채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불상을 올려놓는 대좌는 없다. 불상 바닥에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물건을 넣는 복장(腹藏)구멍(8.5㎝×6.5㎝×19.5㎝)이 있지만, 복장물은 사라져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복장구멍 주변에는 개금불사 때 한지를 붙였던 흔적과 복장물을 넣고 다라니경을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당당하면서도 안정감이 좋은 이 불상은 얼굴과 옷 주름의 표현, 옷을 입은 모습 등에서 18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6> 원명 선원 전경과 석조여래좌상 모습

(11) 거로능동산방묘[탐라성주고봉례부부묘역]

이 분묘는 화북 거로마을의 '능동산' 지경에 있다. 『고씨세보』에는 고봉례의 묘가 화북 거로 지경에 부부합장묘로 안치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태종실록』 등 문헌기록에 의하면, 탐라의 마지막 성주인 고봉례의 사망년도가 태종 11년(1411)으로 나타나 있다.

이 분묘는 방형석곽묘 2기가 함께 조성된 쌍분(雙墳)이다. 자연적으로 높게 형성된 능선 정상에 묘역을 조성함으로써 위세를 갖춘 봉토로 보이도록 하였다. 분묘의 축조방법은 원래 한 단 낮은 면을 2m 이상 점토층으로 성토하여 분묘 구역을 계단형태로 조성했고, 대형 할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석곽을 돌렸으며, 그 안에 깊게 묻는 심장법(深葬法)을 택했다. 석곽은 2단을 기본으로 하여 높은 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5단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축조방식이 비교적 정교하다.

발굴조사를 통해 1호분에서 조선 초기 백자대접편, 2호분의 봉토에서는 흑상감청자편이 출토되어, 늦어도 그 축조시기가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임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사진 지형을 일정 높이의 점토로 성토하여 방형의 곽을 만들고 시신을 깊게 묻는 이러한 분묘의 축조 방법을 고려하고 분묘 조성 시 다수의 인력 동원이 이루어졌을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 신분의 묘는 아니다. 또한 출토유물로 보아 그 축조 시기가 조선 초기 이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문헌과 족보에 전하는 고봉례[31]의 무덤일 가능성이 짙다.

<그림 17> 거로능동산방묘 원경과 근경(2011. 7. 사진)

(12) 김석윤 와가

화북동의 김씨가(金氏家)는 20세기 초에 창건된 4칸 와가로 북향을 하고 있다. 투박한 제주 와가의 조형미가 돋보이며 문은 평대문을 갖추고 밖거리와 이문거리를 갖춘 근세형(近世型) 민가이다. 대문과 이문 사이에 샛문이 있어서 사랑채

31) 고려 후기 제주안무사를 지낸 무신으로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아버지는 탐라성주(耽羅星主) 신걸(臣傑)이다. 고려 말에 탐라가 여러 번 모반하므로 이를 회유하려는 조정에 의하여 1386년(우왕 12) 전의부정(典醫副正) 이행(李行)과 대호군 진여의(陳如儀)가 탐라를 위무하고 돌아올 때 함께 개경으로 들어와서 1388년 제주축마 겸 안무별감(濟州畜馬兼安撫別監)이 되었다. 곧 제주도로 귀환하였고, 태조 때는 빈번히 군마를 바치는 등 성의를 다하였다. 1402년(태종 2) 탐라성주 재직 시에 신라 이래로 제주를 지배한 고씨(高氏)와 양씨(梁氏)가 세습한 성주(星主)와 왕자(王子)의 명칭이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하여 줄 것을 청하여, 성주는 좌도지관(左都知管), 왕자는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개칭되었다. 1407년 5월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1410년경에는 제주안무사가 되었다. 1411년 8월 아들 상온(尙溫)에게 세직(世職)인 제주도주관좌도지관(濟州都州官左都知管)을 승습시켜줄 것을 청하여 승계시키고 한성에서 죽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제주를 안무함에 큰 공이 있었고, 태종의 지극한 은총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측면으로 드나들도록 하였고, 머리뜰에 사군자(四君子)를 소재로 한 정원을 조성하여 자적하던 문인의 주거유형을 따르고 있다.

이 집은 4칸 와가의 안거리를 위시하여 같은 크기의 초가 밖거리와 삼칸 이문거리 그리고 단칸의 와가 평대문과 부속초가로 구성되었는데 긴 올레와 평대문을 거쳐 바깥마당에 이르고, 다시 이문을 거쳐야 마당에 이르도록 공간의 켜를 중첩시키면서 그 사이로 협문을 통해 밖거리 머리쪽 사랑칸으로 드나들도록 동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사랑으로의 동선에 연접하여 정원공간을 조성해 놓고 있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제주민가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사회 공간, 즉 남성 영역을 분화시켰고 정서공간을 조성한 제주 민가를 발전시킨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부지방의 연해지역 부농형 민가의 공간구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곳과의 빈번한 교류에서 전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8> 김석윤 와가

2) 비지정문화재 현황 조사

화북 마을 일대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가 많다. 이러한 비지정문화재는 현재 자연적인 요소로 남아있거나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마을 신앙과 관련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화북동 일대 비지정문화재 연혁과 현황은 다음 <표 3>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 화북동 일대 비지정문화재 연혁과 현황

자원명	위치	시대	자원현황
윤동지영감당	화북동 1392번지	조선~현대	민속신앙(화북동 윤동지영감)
본향 가릿당	화북동 동마을 동산	미상	민속신앙(화북동 본향 가릿당)
엉물 머릿당	화북1동 별도포 동쪽길가	미상	민속 신앙, 멸실 유적
베릿네 소낭알당	화북동 베릿네	미상	민속 신앙, 멸실 유적
소림사지	거로마을 번영로 도로변	미상	사찰 터, 멸실 유적
앞 원	화북동 금돈지 바깥쪽	미상	자연포구
이기숙 와가	화북동 1067	근대미상	민가, 와가
김용일 와가	화북동 4230	근대	민가, 와가
화북동 4•3성지	화북동 거로마을	근대	제주 4·3유적
김정목사 선정비	화북동 1618번지	조선시대	선정비(牧使金公亻政奉□□碑)
엉물머릿개	화북항 남쪽포구	미상	자연포구
심상연연정비	화북동 3957번지	조선시대	선정비 (목사심상연상황청덕선정비)
경찰순직비	화북동	대한민국	순직비(화북아파트단지 남쪽 소공원)
별도봉 군인숙청학살터	화북동 별도봉 동남쪽 기슭	대한민국(1948)	학살터 (화북동 별도봉 갱도진지 학살 터)
대비터 대비폭낭	화북동 거로마을	조선시대 (1616)	적거지
청풍대	화북동 중마을	일본감정기 (1941)	쉼터, 공원
잃어버린마을 곤을동	화북동 4410번지 일대	대한민국 (1949)	4·3 유적 (잃어버린 마을)
별도봉 진지동굴	별도봉 남측 탐방로 주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진지동굴
황세왓(황사평) 천주교순교자묘역	화북동 황사평	조선 (1901년)	무덤 (황세왓 천주교인공동묘지), 이재수 난
별도포/화북포	화북동 북쪽해안	미상	포구
화북수전소	화북동 1618 (5761)	조선시대	방어유적, 멸실 유적
환풍정	화북동	조선시대	멸실 유적
곤을포	화북동 서마을 해안	미상	포구, 멸실 유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윤동지영감당

화북1동 동쪽 삼사석비가 있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5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당에는 윤동지영감 1신위를 모신다. 현무암을 잘 다듬어 장방형으로 제장을 에워 둘렀고, 그 안 동쪽 담을 의지하여 제단을 마련하였다. 자연석을 다듬어 좌우에 보호벽으로 두고 위에도 지붕으로 덮고 그 안에 미륵돌을 모셨다. 이 미륵돌 왼쪽에도 보호벽 없이 미륵돌이 하나 놓여 있다. 미륵돌은 하얀 백지로 싸서 모신다.

윤동지 영감당의 유래는 아래와 같다.

〔어느 날 어부 윤동지 영감이 배를 타고 고기를 낚는데 오목하게 패인 돌이 낚시에 걸려 올라왔다. 어부는 이를 낚시에서 떼어내어 던져버리고 왔는데 다음 날 다시 낚시에 그 돌이 걸려 올라왔다. 어부는 이 돌멩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배에 실고 돌아와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을 듣던 한 젊은이는 이치에 닿지 않은 말이라 하며 그 돌을 선창에서 바다로 던져 버린다. 그런데 다음 날 어부는 다시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데 전날 선창에서 바다에 던져 버린 돌멩이가 다시 낚시에 걸려 올라오니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여 관가에 가서 그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관가에서는 필경 그 돌에 귀신이 붙어 생긴 일이니 잘 모시고 제를 올리도록 하였다. 이후 윤동지 영감은 이 돌을 조상신으로 모시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그림 19> 화북동 윤동지영감당 외부 및 내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가릿당

가릿당은 화북동의 본향으로 화북 월마트 뒤편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잡목초지 안에 위치해 있다. 송악에 지전, 명주실이 많이 걸려 있고 당의 좌우에는 송악 2그루가 안으로 뻗어 있다. 이 당에서는 '큰도한집', '동서고칫할망' 등 3신위를 모신다.

큰도한집은 마을 사람들의 생산, 물고를 관장하는 본향신이고, 동서고칫할망은 부스럼을 치료해 주는 치병신이다. 제일은 정월 7일, 17일과 매달 3일, 7일인데, 택일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는 화북동 주민 일부만이 다닌다. 당에 갈 때는 메 3그릇을 준비한다. 신목형, 석원형, 제단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해신계, 산신계, 농경신계보로 당의 보전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화북에서는 "해신사를 가장 큰 신으로 모셔 정월 5일 이후에 가릿당을 찾았다고 하고, 가족의 띠가 없는 날을 택일하여 정성을 드렸다"(김정치, 전 화북1동 마을회장)고 한다.

<그림 20> 화북동 가릿당 입구 및 본향신

(3) 엉물머릿개

화북에는 포구가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 동쪽에 있는 포구를 '엉물머릿개'라고 한다. '엉물머리'에 위치한데서 유래한다. 동쪽에 위치한 암반 줄기인 '연디콧'을 의지해 축조되었다. '연디콧'은 위치상 동풍을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바다쪽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썰물 때나 모습을 드러내는 '지방여', '족은툰여', '큰툰여' 등의 수중 암초들이 여기저기에 있어 북풍을 다소나마 막아준다. 서쪽에 위치한 '화북포구'를 흔히 '새성창', 혹은 '묵은성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현재 동마을 복지회관 맞은편에 위치 했던 영물머릿당은 물신을 섬기는 당으로 물이 귀했음을 알 수 있고, 재건설되면서 그 자리는 멸실되었으나 포구로 아직까지도 물이 흐른다"(김규전, 현 동마을 노인회장 인터뷰 인용)고 말했다.

<그림 21> 엉물머릿개 전경

<그림 21-1> 엉물머릿당(상단 오른쪽)을 모신 곳과 현재 물이 흐르는 경로

(4) 옛 화북포구 금돈지

화북에는 포구가 둘 있다. 그 중 서쪽 포구이다. 별도포는 '건들개'와 더불어 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주의 2대 관문이었다. 건입포보다 먼저 활용되기 시작해서 일제가 산지항을 축조하기까지 오랫동안 이 포구를 통해 생활물품, 관수물품이 드나들었다. 1601년 간행된 김상헌의 『남사록』에 별도포가 등장한다.

특히 이형상(1653-1733) 편찬한 『탐라순력도』(1702) '호연금서(湖然琴書)'[32]라는 그림에 화북포구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이 목사가 부임할 때 한라산을 바라보며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었던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다. 화북포구의 시대적 배경에는 왜구의 침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제주에는 왜구 출현이 빈번해졌다. 고려 충숙왕 10년(1323) 6월 추자도, 충정왕 2년(1350)에는 정의에 침입했다. 또 공민왕 원년(1352)에는 우포(지금의 용수리), 공민왕 8년(1359)에는 대촌(지금의 제주시)을 침범하기도 했다. 우왕 2년(1376)에는 왜구 600척이 제주 온 섬에 침입하자, 성주(星主) 고신걸(高臣傑)이 방어했는가 하면 우왕 3년(1377)에는 또 다시 왜구 200척이 제주를 침범했다고 한다. 특히 조선 명종 10년(1555)에 을묘왜변이 발생했다. 1000여 명의 왜구는 60여 척의 배에 분승, 화북포를 거쳐 제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제주목사 김수문을 중심으로 한 민·관·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읍성과 맞닿아 있는 건입포구로 많은 배들이 오가는 것은 방어에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 선박의 구별이 쉽지 않아 왜구가 침입할 경우 방어에 필요한 시간이 없어 다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로 들어오는 배들은 건입포구가 아닌 화북이나 조천포로 출입토록 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2) 1703년(숙종 29) 보길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는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한라장촉>과 짝을 이루는 그림이다. 그림 왼쪽에 원당만, 오른쪽에 사라망이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중앙의 진성은 화북진성이다. 몇 척의 배가 별도포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육지 지역과의 주요 통로로 조천포보다 별도포가 널리 이용되었던 듯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탐라순력도, 2006,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22> 보길도에서 본 화북포구(호연금서) 및 금돈지 주변과 포구(현재)

(5) 앞 원

화북동 서쪽 마을 공동어로집단 소유의 원으로 '금돈지' 바깥쪽에 있다. 화북포구와 함께 마을의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지 '앞 원'이라고 한다. 화북포구와 함께 돌출되어 있는 '남당머리코지'를 의지해 만들었다. 원은 조간대 중간층에 위치하여, 반쯤 썰물이라도 원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완전 썰물에는 바닥이 드러난다.

<그림 23> 앞 원 전경

(6) 곤을동 마을 터[33]

곤을동 마을터는 오현고등학교 동쪽 길로 화북동으로 가다보면 소나무가 서

33) 제주도, 제주4·3연구소의 『제주 4· 3유적 I』, 200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는 비석거리를 만날 수 있다. 그곳에서 왼쪽 길로 100m 정도 내려가면, 별도봉 쪽 해안에 곤을동 표석을 볼 수 있다. 과거 70여 호로 이루어졌던 곤을동은 1949년 1월 4일 군인들에 의해 초토화되면서 복구되지 못한 잃어버린 마을이다.

화북천이 바다를 향해 흐르면서 별도봉 동쪽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천 안쪽에 있던 '안곤을' 22호, 하천과 하천 사이에 '가운데곤을' 17호 그리고 '밧곤을' 28호 등으로 이루어졌던 마을이다. 밧곤을과 가운데곤을 주민들은 '덕수물', 안곤을 주민들은 '안드렁물'이란 용천수를 식수로 사용했었다. 작지만 마을 공회당도 있었고, 안곤을과 가운데 곤을에는 말 방앗간도 있는 전형적인 자연마을이었다.

제주 해안마을의 주요 생활 형태인 반농반어로 생계를 꾸리던 이곳 주민들은 1949년 1월 4일, 불시에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가옥이 전소되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그날 오후 서너 시쯤 들이닥친 군인들은 안곤마을과 가운데곤을의 집집마다 불붙이며 주민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젊은 사람들 10여명을 별도봉 바닷가로 끌고 가 총살했다. 또 살아남은 젊은 남자 대부분을 화북지서로 끌고 가 하룻밤을 지새운 뒤, 다음날 '모살불'이란 해안에서 총살해버렸다.

지금 안곤을 터엔 방앗돌이 있고 집터가 비교적 뚜렷이 남아있다. 2003년 4월에 제주도에서 '잃어버린 마을' 표석을 세워 이정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림 24> 곤을동 마을 터 모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인목대비 모친 노씨 유배지

유배객들 중에서 화북에서 직접 유배생활 했던 자는 아직까지 인목대비(仁穆大妃)의 모친(母親) 노씨(盧氏)[34]가 유일하다. 노씨는 광해군[35] 당시 외손자인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고, 딸인 인목대비가 서궁(西宮)에 유폐되는 비극을 겪게 된다. 이후 노씨는 가족, 즉 인목대비의 친정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과 그 아들 등 남자들은 참형에 처해지고, 노씨는 제주도로 유배된다.

인조반정으로 해금되어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5년 동안 노씨가 적거했던 곳이 화북동 거로마을에 있다. 이곳은 지금 '대비터'라고 불리어지고 있긴 하나, 인목대비가 유배 왔던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노씨가 적거(謫居)하면서 지낸 곳이다.

<그림 25> 인목대비 모친 유배터 전경

34) 노씨는 김제남의 부인이자 인목대비의 어머니로서 김제남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한다는 모함을 얻어 처형되자 남편에 연좌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궁핍한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그곳에서 모주(母酒)를 만들어 팔며 연명했다고 한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방면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조선시대 유배문화,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35) 조선 15대 왕으로, 명과 후금 두 나라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쳤다. 당쟁에 휩쓸려 임해군과 영창 대군을 죽이고, 인목 대비를 유폐시켰으며, 후에 인조반정으로 폐위된다. 한국사 개념사전, 2010, (주)북이십일 아울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2009 화북동 역사 · 문화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SWOT 분석

2009년 12월에 발간된 <화북동 역사·문화 장기발전 계획>은 아키떼르 흙건축문화 연구소에서 용역에 의해 연구한 보고서로서, 화북동에 관한 지역현황과 마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화북 마을의 지역 자원의 현황을 정리한 후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4>.

<표 4> 현황종합분석

입지 여건	현 황	분석/잠재력
입지조건	• 제주의 옛 관문이었던 화북동은 제주시 동부지역에 위치하며 제주항과 제주외항이 인접하여 제주의 관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화북동은 해신사, 삼사석, 환해장성, 화북진성, 비석거리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함	• 제주항만이 인접해 있어 국내외 접근성이 매우 높음. • 역사·문화관광과 해양공원 조성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음.
자연환경	• 바다와 접해 있는 별도봉은 수직 단애가 발달하여 있으며, 제주시의 북부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곳임. • 화북천이 흐르고, 용천수가 발달하여 있음.	• 바다와 접해 있어 친수공간의 확보가 용이하며, 사라봉공원과 별도봉 장수산책로는 화북동의 역사문화자원 탐방과 연계 가능성 높음. • 용천수를 활용한 물 체험 등의 연계프로그램 가능성 높음.
인문·사회환경	• 화북동은 2개 법정동으로 6개의 자연마을, 4개 화북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일한 생활·문화·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 못함. • 화북동은 자연녹지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일반상업지역, 자연취락지역, 보전녹지역,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이 다양함.	• 화북동 단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함.(도시계획도로 및 화북동해안도로 사업 추진) • 자연취락지구와 신 주거단지와 연계된 차별화된 개발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화북아파트, 삼화지구 택지개발 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됨. •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제주도 최대의 공업지역이 입지함. • 오름과 하천, 바다가 어우러져 도시 내 녹지경관이 아름답고, 공원면적이 높은 지역임. • 제주의 옛 관문이었던 화북동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나 자원의 활용은 낮음.	•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 추진해야함. • 공업지역을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방안과 장기적 과제로 이설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 모색. • 보전녹지와 공원면적의 공유화 추진. 탐방로 조성, 건강 및 다목적 스포츠시설 유치. • 문화재에 대한 보전 방안과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1) 화북동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SWOT분석

(1) 장점(Strength)

① 고대의 탐라문화 등 제주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경관 보유하고 있다. 삼사석을 비롯한 해신사, 윤동지영감당, 비석거리, 방어유적 등 탐라문화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유적이 산재되어 있어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물론 문화산업콘텐츠화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사라봉과 별도봉으로 이어지는 제주의 북부해안선과 화북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 또한 제주의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관자원이 될 수 있다.

② 초등부에서부터 중등, 고등, 대학교육기관이 행정구역내 골고루 분포해 있어 지역 중심의 교육문화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국제휴양관광지를 지향하면서 산업간 잠재력이 증대되고 있다.

④ 오름과 하천이 바다와 접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친수공간의 확보와 이용이 좋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약점(Weakness)

① 행정구역내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경관자원 등을 활용한 체계적 개발과 문화관광자원화 측면에서 미흡하다. 독특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노력이 미흡하고,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유·무형의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공업지역으로 인해 도심 내 토양오염과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주변에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되고 있는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③ 도심의 수평적 팽창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지만 생활공간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④ 2차 가공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1차 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산업생산 활동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구조로 산업생산인구의 유동성이 높고, 생활권과 산업경제권이 이원화되어 있다. 도심에 위치한 농업구조로 인해 1차 산업의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기회요인(Opportunity)

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교통의 입지적 특성에 의한 발전가능성이 높다. 화북동은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이 인접해 있는 입지적 특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과 맞물려 휴양과 체험관광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제주외항이 접해 있어 인적·물적 이동이 자유롭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과 공간적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역사·문화 및 오름, 하천경관이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어 생태문화관광으로서의 개발 잠재력 높다. 역사·문화자원, 수변 공간 등 관광요소들이 집약적으로 입지하고 있고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관광 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에 용이하다.

최근 문화와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단순한 경관관람·경유형 관광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역사문화 및 향토·생태자원 등을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패턴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면 잠재력을 배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③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등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 주민주도와 참여를 통한 지역개발 의지와 욕구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조직적이다.

④ 명소·명품 만들기 사업 확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 화북동의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와 장소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여 지역의 명소·명품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제약요인(Threatener)

① 개발로 인한 고유한 문화전통과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이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발 수요의 증대는 개발 후에 역사·문화 및 생태관광의 기초가 약화될 수 있다.

② 대규모 항만개발과 준공업 지역 입지로 인하여 환경이 불리하다. 제주외항 개발은 향후 화북동의 새로운 상업공간이 형성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화북동에 위치한 준공업 지역은 주변지역과 공간적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수 도 있다.

③ 대상지 전역에 걸쳐 상위 계획에 의해 개발행위 제한으로 문화재보전지구,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준공업 지역 등 대상지 전역에 걸쳐 상위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④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이와 연계되는 숙박·음식점·쇼핑·편의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역사·문화관광지로서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화북동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SWOT분석을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5>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고대의 탐라문화 등 제주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경관 보유함. • 교육문화의 중심지. •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국제휴양관광지 지향. • 바다가 인접하여 친수 공간 확보가 용이함.	• 행정구역내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경관자원 등을 활용한 체계적 개발과 문화관광자원화 미흡함. • 도심의 쾌적성이 떨어지고 도심 내 정주환경 불리함. • 지역공동체 형성 미비함. • 2차 가공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1차 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됨.
기회요인((Opportunity)	**제약요인(Threatener)**
•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교통의 입지적 특성에 의한 발전가능성 높음. • 역사·문화 및 오름, 하천경관이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어 생태문화관광으로서의 개발 잠재력 있음. •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등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명소·명품 만들기 사업 확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됨.	• 개발로 인한 고유한 문화전통과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됨. • 대규모 항만개발과 준공업지역 입지로 인한 환경 불리함. • 대상지 전역에 걸쳐 상위 계획에 의해 개발행위 제한됨. • 체류형 관광인프라 부족한 환경임.

2) SWOT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1) 장점의 극대화

① 고대의 탐라문화 등 제주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콘텐츠를 창출하여 독특하고 매력적인 화북동의 역사·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화자원의 발굴 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화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물론 문화산업 콘텐츠 사업 추진으로 오름, 바다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결합한 체험형의 생태문화상품 및 코스 개발한다.

② 교육문화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및 공간을 조성한다. 교육·문화·예술·복지·환경, 자원활동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한다.

③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국제휴양관광지에 맞는 자원의 특화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자원의 특성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개발 모색한다.

④ 친수공간을 활용한 해양공원화 및 야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시민의 여가 증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 약점의 개선

① 유·무형의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다각적인 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방안 모색한다.

② 도심의 쾌적성이 떨어지고 도심 내 정주 환경의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하고 화북공업지역 이전 계획의 정책적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단지로의 변화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하고 통합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하여 최적의 환경을 유지한다.

③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축제를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공동체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

④ 산업생산인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1·2·3차 산업간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자립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업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주말농장, 체험농장 등 도시민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시스템 구축한다.

(3) 기회요인 활용

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교통의 입지적 특성에 의한 발전가능성이 높다. 제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이 인접해 있는 입지적 특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과 맞물려 휴양과 체험관광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제주외항이 접해 있어 인적·물적 이동이 자유롭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과 공간적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역사·문화 및 오름, 하천경관의 매력적인 공간을 활용한 미래형의 역사·문화, 생태·문화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다.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근거리 보행관광, 체험관광, 체류형관광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다.

③ 주민주도방식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주민자치실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다.

④ 지역자원을 특성화한 명소·명품 만들기 등 장소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전략으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4) 제약요인의 극복

①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와 교육, 보전의 연계하여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와 이용 계획에 앞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② 제주외항은 향후 화북동의 새로운 상업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으로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주변지역과 연계된 해양관광, 자연·문화관광, 야간관광 등의 지역적인 특화구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요구와 자본유치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③ 체류형 역사·문화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와 연계되는 숙박·음식점·쇼핑·편의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인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북동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SWOT분석에 따른 대응방향은 <표 6>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6> SWOT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고대의 탐라문화 등 제주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 창출 가능함. • 교육문화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함. •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국제휴양관광지에 맞는 자원의 특화방안 모색 가능함. • 친수 공간을 활용한 해양공원화 및 야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시민의 여가 증진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 가능함..	• 유·무형의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 도심의 쾌적성이 떨어지고 도심 내 정주 환경의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함.
기회요인(Opportunity)	**제약요인(Threatener)**
•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교통의 입지적 특성에 의한 발전가능성이 높음. • 역사·문화 및 오름, 하천경관의 매력적인 공간을 활용한 미래형의 역사·문화, 생태·문화관광지 개발 가능함. • 주민주도방식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조직 만들기 필요함. • 지역자원을 특성화한 명소·명품 만들기 등 장소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역사문화자원의 조사연구와 교육, 보전의 연계성 강화해야함. • 해양관광과 자연·문화자원의 특화전략 수립해야함. • 상위계획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계획을 수립해야함. • 체험형·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해야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화북 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1. 화북 마을 스토리텔링 추진 현황

1)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09년 역사·문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 단기계획(3년)인 <역사·문화 탐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단계(3년, 중기계획), 3단계(4년, 장기계획)로 실행계획을 세부화 하였다<표 7>.

<표 7> 단계별 실행계획 세부내용

1단계(3년, 단기계획)	2단계	3단계
<역사·문화 탐방지 조성사업>		
• 역사·문화 탐방동선 및 코스 개발 역사·문화 유적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탐방동선 및 코스개발 • 역사·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설집 발간 탐방지도 등 리플렛 제작 해설가 모임 구성 운영 • 인프라 구축사업 역사·문화 탐방동선 및 코스 개발사업 탐방 동선에 따른 동선 안내판/포인트 해설판 설치 화장실, 쉼터 등 하드웨어 지원시설 • 용천수 정비사업 용천수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천수의 지질학적 특성 및 용출량조사	• 인프라구축사업 쉼터(공원), 탐방안내소, 주차장 등 하드웨어 지원시설 사업 • 용천수 정비사업 2단계 정비사업 추진 및 복원사업 추진 용천수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7>에서 제시한 <역사·문화 탐방지 조성사업> 외에 < 4·3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마을터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해신사 공원조성 및 베트화 사업>, <야간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지역브랜드 및 마케팅>등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세웠다.

화북동에서는 <역사·문화 탐방지 조성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2010년 7월 28일부터 100일간 총 42시간에 걸쳐 문화유적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스토리텔링 역할과 제주관광-박상수, 경영학 박사, 제주관광대학 평생교육원장> 국내의 관광의 변화에 따른 트랜드와 제주관광의 방향을 논하였다. 그리고 <해설사의 전달기법-이홍규>, <제주해녀 역사와 문화-좌혜경>, <조선시대 제주, 출륙금지 정책을 중심으로-장혜련>, <화북동의 지명-오창명>, <제주문화-김순이>, <제주 4·3 사건과 평화의 섬-박찬식>, <화북동의 역사·문화해설사 양성교육-김일우>, <설문대할망 재구성-장영주>, <신당과 당굿-문무병>, <제주도의 용천수와 물 문화-박원배>, <제주 관광자원-강보식>이다. 다양한 방법의 정보와 문화해설사로서 갖추어야할 인문학 교육을 실시했다.

2011년에는 6월 20일-8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17시간에 걸쳐 문화유적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지리로 알아보는 화북동-신영대, 제주관광대학 평생교육원>, <강원도 해설사 지역사회에서 역할-안광준>, <TGIF 콘텐츠를 텅한 관광정보 파헤치기-고창균>, <화북동 해설 매뉴얼-윤영국>이다.

2010년에는 이론적인 교육에 접근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타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화북동이 추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매뉴얼을 통해 해설사들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행했다.

2013년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김창기 위원장)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화북마을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고 주제별로 도내로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 탐방 교재>를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 자료로 보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북 마을의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돌과 관련한 이야기, 해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의 물에 관한 내용은 견학을 통해서 화북마을은 물론 제주의 역사, 문화를 알아보는 프로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램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단기계획의 내용으로 본다면 코스 개발, 해설사 양성교육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용천수 정비 사업은 1차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다음 단계에서 실행할 내용 중에서 쉼터(올레길 안내소-해신사 주차장 근처)는 2011년 8월에 건립하여 18코스 개장에 앞서 올레꾼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유적해설사 13명을 양성하여 투입하기도 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로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고봉주 위원장)는 2011년 읍면동 평가에서 제주도 우수단체로, 제주시 평가에서는 최우수 주민자치단체(임영근 동장)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쉼터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정책적으로 예산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18코스 개장 이후로 화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정도를 예상한다면 해설사들의 역할과 쉼터의 기능은 퇴색되면 안 된다. 화북동에 대하여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곧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다.

2)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사업

화북 마을은 삼별초와도 관련이 있는 곳이다. 고려 관군은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왔지만 삼별초에게 패하고 전멸한 곳이다. 송담천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36]에는 '동제원이 주 동쪽 9리, 송담천이 주 동쪽 13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탐라지>에는 '화북천이 주 동쪽 13리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송담천[37]은 지금의 화북천이며 환해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가지의 동쪽 지역에 흐르는 하천이다. 한라산 기슭 흙붉은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별도봉 동쪽을 휘돌아 바다로 들어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에는 '별도천(別刀川)'으로 표기했다. 『탐라지』에는 '화북천(禾北川)'이라 표기했고, "제주성 동쪽 13리에 있다. 가뭄이 들면 내가 마르고 비가 오면 내가 넘친다. 포구에는 후풍관이 있다." 라고 했다. 『영주산대총도』에는 '별도천(別刀川)'이라 했고,『동여도』에는 '화북천(禾北川)'이라 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처음에는 주로 '별도천'으로 부르다가 19세기 이후 주변의 '화북포', '화북진' 등 취락의 명칭을 따서 '화북천'으로 많이 부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2010.12, 국토지리정보원.

37) 현재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을 경계 짓는 내를 말한다. 1270년(원종11) 이문경 부대의 삼별초군이 고려 개경정부의 관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둔 곳이다. 원종11년 고려 개경정부는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코자 김수와 고여림 장군이 거느린 군대를 제주에 보내 방비케 했다. 이들 관군은 삼심봉에 진지(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제주시 화북동 일대 해안지역을 방비하는 시설도 설치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삼별초),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와 관련하여 화북동에서는 2011년 10월 24일 <700년 삼별초 뱃길 탐험항해>라는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탐라-진도의 구간으로 항해를 하여 700년 전에 삼별초의 발자취를 찾아 구국정신과 탐라의 정체성을 찾고자 기획된 행사다.

항해일정은 제주시 화북포구에서 해신제를 드리고 출발하여 진도를 거쳐 용장산성을 답사하고, 금감항에서 해남을 거쳐 소안도-추자도-항파두리 항몽유적지가 있는 애월항으로 들어오는 6박 7일간의 여정이었다. 세계 탐험 항해 사상 가장 작은 돛배(風船)를(길이 5m, 폭 2m)이용하여, 300km에 달하는 거리를 항해하는 행사였다.[38]

출항 전에 해신사에서 해신제를 올려 무사안녕을 기원으로 마을 민족보존회의 길트기 풍물놀이로 출항을 하여 항해가 시작되었으며, 항해기간동안 전 과정은 방송사에서 취재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독특한 문화행사로 소개되었다. 이 행사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를 적절히 활용한 사례였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화북포구에서 진행했던 만큼 도내 관심을 끌었고 화북 마을의 문화재와 마을을 홍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그림 26>.

<그림 26> 700년 삼별초 뱃길 탐험항해일정[39] 및 해신제

38) 고대항해탐험연구소 채바다(68) 소장과 다큐멘터리 작가 이종호(64)씨, 어부인 고태홍(69)씨 등 3명은 2011년 10월 24일 오전 11시 제주시 화북포구의 해신사에서 출항기원제를 올린 뒤 길이 5m, 폭 2m 크기의 풍선(風船)인 '삼별초호'를 타고 출항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하단 왼쪽 이미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마을 스토리텔링 및 UCC 공모전

오래 전부터 문화 사업을 준비한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봉주)는 2012년 마을을 홍보할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화북마을의 다양한 문화재 소재나 이야기 거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2012 제주시 화북동 UCC·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은 UCC분야, 단편 시나리오 분야로 나눠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추진되었다.

총 235작품이 접수되었고, UCC분야에 7작품, 단편 시나리오 분야에 8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특히 UCC의 경우 유튜브 및 블러그, 카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탑재하도록 하여 적절한 SNS서비스를 통해 화북 마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화북 마을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음은 UCC공모전 수상작과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수상작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그림 27>, <그림 28>.

(1) UCC 동영상 공모전, 우수상<사랑을 걷다, 올레 18코스> 작품

* 여자의 관점
별도봉에서 출발하여 마을로 향하는 코스 선정

* 남자의 관점
마을을 중심으로 별도봉으로 향하는 코스 선정

39) ["삼별초는 더 이상 패배의 역사로 기록돼선 안돼", 삼별초 뱃길 탐험대, 24일 화북포구서 300㎞ 항해 돌입] 이라는 타이틀로 기사화하였다. 미디어제주, 2011년, 10월 24일, 김형훈 기자(상단 왼쪽과 오른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27> 이민규 외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영상제작 동아리 팀 제작(사전단계 이미지)

UCC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사랑을 걷다, 올레 18코스-이민규 외>은 별도봉을 중심으로 남녀상하교차편집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화북동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소개하였다. 도보여행과 젊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구성 하였고, 지도를 통해 화북동의 위치를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사전 기획하였다.

동영상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장르형태로 접수되었고, 화북동의 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삶, 그리고 정책 등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2) 2012 제주시 화북동 스토리텔링 공모부문 우수상

<곤을동 - 고경아, 양진영 작>

별도와 원당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형식으로 4·3 시기에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애환을 표현한 스토리로 글과 상황 이미지가 함께 편집되었다. 일부 글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미지를 소개한다.

곤을동전

"별도야, 가서 물 좀 길어 와라. 애, 별도야!"

어미가 몇 번을 더 소리 높여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창호문을 열고 별도가 얼굴을 내밀었다. 낮 동안 종일 밭에서 일을 한 터라 얼굴에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별도는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하고는 비틀 비틀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엄마는 꼭 해 떨어지고 나야 물 길어 오라 하드라."

"이 놈아, 아직 해 안 떨어졌어. 날 어둡기 전에 빨리 다녀와."

별도는 어미의 손에 등 떠밀려 물동이를 들고 나섰다. 주홍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로 금색 들판이 내려다 보였다. 별도는 쑤셔오는 어깨 죽지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비탈길을 내려왔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푹 내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 길러 가니?"

"원당아! 마침 잘 만났다, 이 녀석아. 같이 내려가자!"

"뭐? 야, 야, 잠깐만!"

별도는 이제 막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원당을 잡아끌었다. 등 뒤에 나뭇가지 한 아름을 지고서도 원당은 못 이긴 척 별도를 따라 나섰다.

"오늘따라 덕수물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 거냐?"

물동이를 끌어안고 볼 멘 소리를 하는 별도를 보며 원당은 말없이 웃었다. 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와 짙은 눈썹이 그를 나이에 비해 성숙하게 보이게 했다. 반면 별도는 여전히 앳된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소년이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상극인 둘은 아주 어릴 적부터 밧곤을에서 함께 자란 죽마고우였다.

"원당아, 근데 너는 지치지도 않냐? 낮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나무하러 다닐 힘이 남아 있어?"

원당은 입을 꾹 다문 채 별도를 한 번 쓱 쳐다보고는 말았다. 그 모습에 약이 오른 별도는 폴짝 뛰어 원당의 목에 팔을 둘러 감았다.

"이 녀석아!" "야, 뭐하는 거야?"

"꼭 내가 입을 열게 해줘야겠냐? 에잇!"

별도는 원당이 허둥대는 사이 빠른 손놀림으로 원당이 등에 지고 있던 나뭇가지를 묶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 둔 끈을 풀어버렸다. 그 바람에 원당이 열심히 주워 모은 나뭇가지들이 와르르 쏟아져 버렸다.

"별도 너 이 자식, 거기 안 서!?"

"너 같으면 서겠냐, 하하!"

원당은 나뭇가지를 다시 주워 담을 생각도 않고 오히려 지게를 내팽개쳐 버렸다. 별도는 큰 소리로 웃으며 저만치 멀어져 갔다. 원당은 잔뜩 열이 올라 씩씩대며 별도를 따라 달렸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원당의 검은 머리칼 위로 가을바람이 자나갔다. 별도와 원당은 한걸음에 내리막을 내려와 덕수물을 향해 달렸다. 원당은 숨을 헐떡이며 앞서 가는 녀석의 뒤통수만을 보고 달렸다. 그 때 갑자기 물동이를 멘 얄미운 녀석이 우뚝 멈춰서 버렸다. 그 바람에 놀란 원당은 돌부리에 걸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 했다.

"인석아, 그렇게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저를 나무라는 소리에도 별도는 꿈쩍을 않았다. 차오른 숨을 힘겹게 삼키던 원당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별도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여태껏 보인 적 없는 뜻 모를 눈빛을 하고 서 있었다(이하 생략).

<그림 28> 곤을동 - 고경아, 양진영 작. 삽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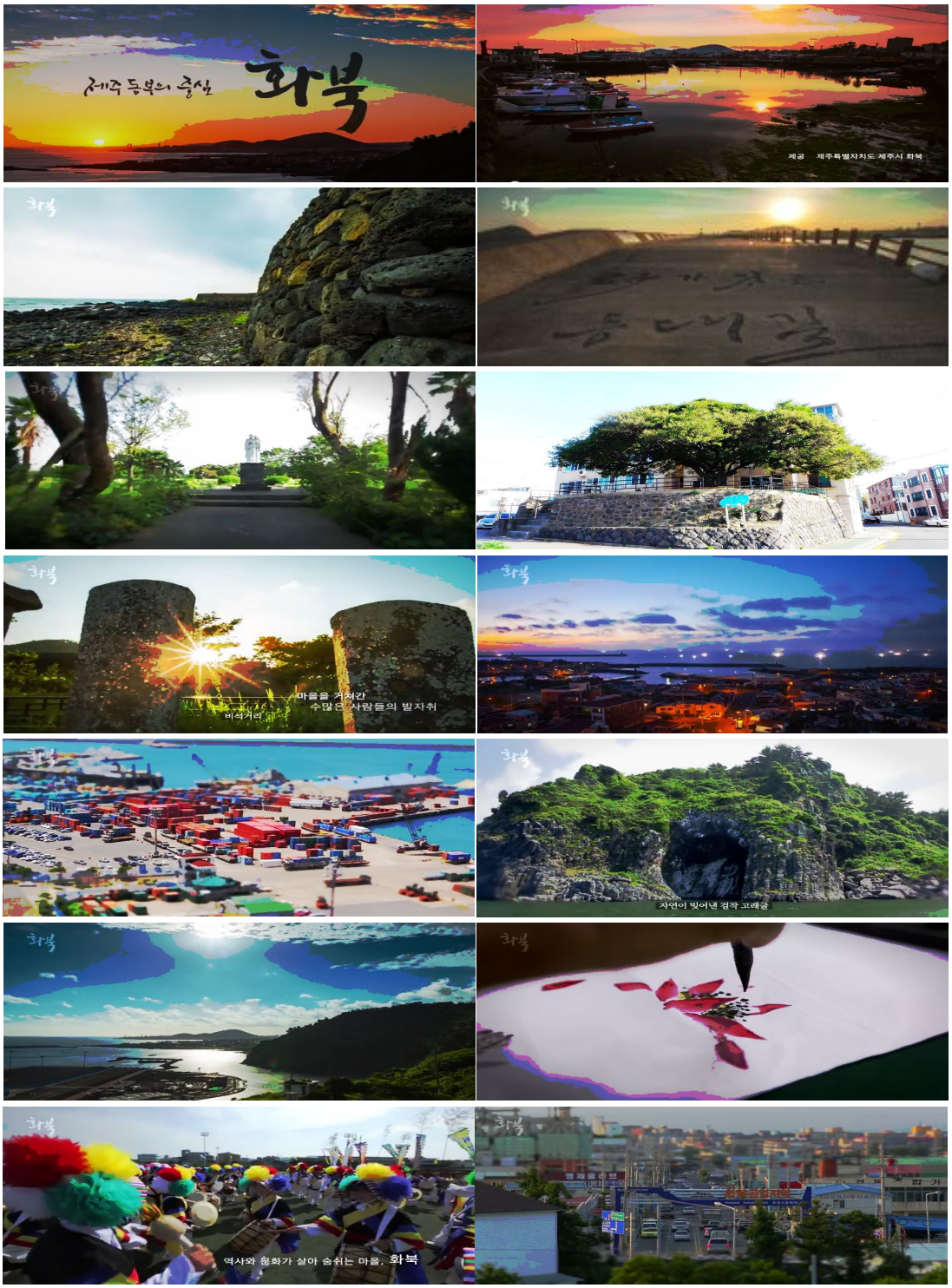
4) 단편 영상 다큐멘터리 부문

화북 홍보를 위한 단편 영상 다큐멘터리[40]를 제작하였다. 화북동의 주요 지형

40)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교수)가 (주)테라픽스와 힘을 합쳐 제주시 화북동을 홍보하기 위해 "제주동부의 중심, 화북"이라는 3종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문화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삶과 환경, 행정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속촬영을 통해 활기찬 화북동의 면모를 표현하였다<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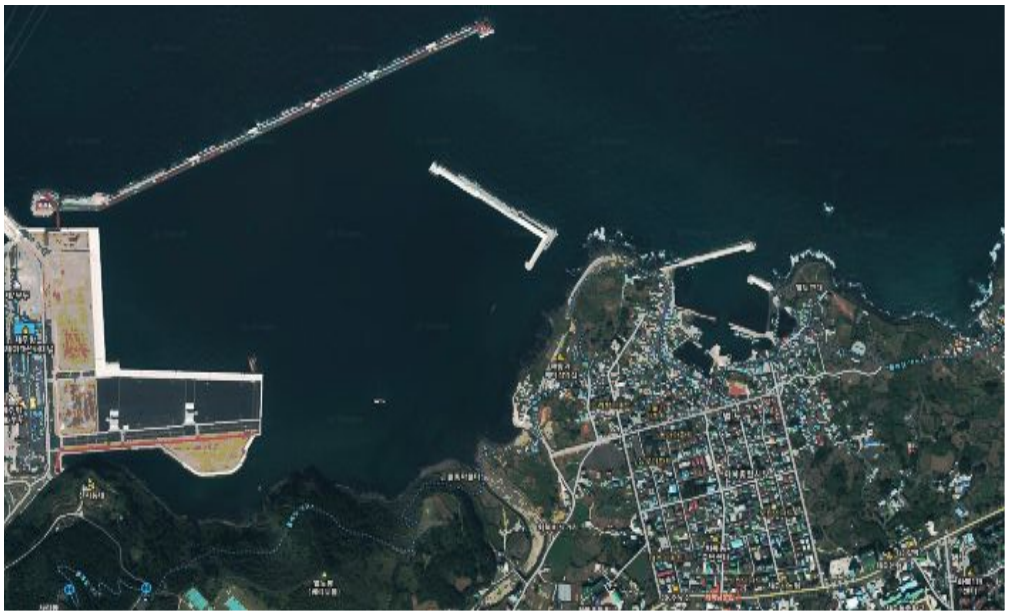
<그림 29> 단편 영상 다큐멘터리 이미지 중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화북 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1) 곤을동 마을 복원과 용천수 개발

곤을동은 화북1동 서마을에 속하는 바닷가 마을로 별도봉 동쪽사면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평경 한라산록에서 발원하여 영평마을과 월평마을을 분계하여 바다로 흘러드는 화북천 하류 두 개의 지류를 끼고, 지류의 가운데를 가운뎃곤을, 서쪽 지류의 서편을 안곤을, 동편 지류의 동쪽을 밖곤을로 구분된다. 이형상 목사 시절의 탐라순력도에는 고노포(古老浦)라고 표기되어 있고, 물이 항상 고여 있고 예부터 물이 그치지 않았던 마을이었다고 한다<그림 30>. 이러한 옛 정서와 환경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0> 다음 지도에서 본 화북지역(포구를 중심으로)

안고을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를 보호하면서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이다.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할 만큼 큰 멸치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담 체험은 자연그물망의 역할을 하는 기능과 밀물과 썰물의 교차 시간에 따라 자연과학 탐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자연과학교육 콘텐츠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화북동은 건천으로 주변 자연환경에 비해 환경조성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여 건천을 살아있는 내천으로 조성하여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람사르 습지환경을 만든다.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면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용천수를 끌어올리는 작업과 돌들을 깨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천수가 용솟음치게 만들어 자연수는 저장장치를 거쳐 안전점검을 통해 상수도를 만든다. 그리고 4·3 유적으로 남아있는 잃어버린 마을 초가집은 일부 재연하고 전통가옥으로 리모델링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전통 초가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위령탑을 쌓으면서 배려와 용서를 배울 수 있는 힐링의 요소도 중요하다. 주변 공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 캠핑장을 만들어 자연과 더욱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방학기간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심신의 안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고을을 전체적으로 야간조명을 활용하여 야간 낚시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코스로 만들어 도보 여행자에게도 볼거리와 느낄거리를 제공하는 코스로 만든다. 특히 외항건설로 인하여 대형크루즈의 정박으로 야간 관광은 중요한 요소로 주목 받고 있다. 야간 관광을 통해서 민박이나 팬션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주변 먹거리와 놀거리가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 주변 문화 요소들을 활용해야한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생성은 교육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누구든지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드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31> 곤을동 마을 조성 이미지

곤을동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이미지를 첨부한다<그림 31-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31-1> 곤을동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이미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노씨부인과 모주, 마을 브랜드 상품 개발

(1) 노씨부인 모주 브랜드화

『대동야승(大東野乘)』[41]에 의하면,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씨부인이 광해군 때 제주도에 귀향 가서 술지게미를 재탕한 막걸리를 만들어 섬사람에게 값싸게 팔았다. 왕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라고 '대비모주(大妃母酒)'라 부르다가 모주(母酒)가 되었다 한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막걸리를 모주라 부른다.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로 술지게미에 물을 타서 뜨끈뜨끈하게 끓여냈다. 모주는 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아 맹물을 겨우 면하는 정도의 것으로, 노동자들이 해장 겸 아침 겸으로 먹었던 술이다.

현재 전주지방의 모주는 막걸리에 생강, 대추, 감초, 인삼, 칡(갈근) 등의 8가지 한약재를 넣고 술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고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계핏가루를 넣어 먹는다. 전주 지방의 명주인 이강주와 함께 해장술로 모주가 유명하다. 전주 모주는 국내 막걸리 시장은 물론 중국 대륙에도 진출하여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42]<그림 32>.

<그림 32> 전주 막걸리・모주

41) 조선 시대의 패관 문학서로 조선 개국 초부터 인조 때까지 나온 역사 관계의 만록(漫錄)이나 야사(野史), 수필, 설화 따위를 추려서 모아 놓았다. 종래에 사본 72권 72책으로 전해오던 것을 1909년-1911년 사이에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13책으로 출판하여 널리 퍼졌고, 1968년에는 이것이 다시 전 4책으로 영인, 출판되기도 하였으며, 1971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의한 고전국역총서계획의 일환으로 17책으로 된 원문 포함의 번역본을 간행한 바 있다. 그 중에 광해조일기(光海朝日記) 1권에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42) 전주막걸리·모주, 막걸리 세계화 위해 '중국대륙 진출' 2010.5.5 재경일보(경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모주 개발을 통한 마을 기업 만들기

(주)전주주조에서는 수출을 위해 살균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기한이 짧은 生막걸리의 단점을 보완한 살균탁주를 개발했다는 부분이 타 회사의 제조 방식과 다르다. 유통기간이 3일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하면 기업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극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막걸리는 동산동 및 조촌동 지역에서 생산된 100% 우리 밀, 우리 쌀을 이용한 웰빙 식품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높아지는 소비욕구에 걸맞게 철저한 자동화 살균위생 과정을 거쳐 유통기한을 10개월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모주의 원조는 제주도로 유배 온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씨부인이다. 화북동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팔았던 술인 만큼, 현재에 와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화북 거로 마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으나 현재 기계관련 회사가 들어서져 있고, 술 연구를 통한 복원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부지의 선택과 마을기업경영의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할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그림 33> 모주거리와 제조공장 예상지역

현재 올레길 18코스가 활성화됨을 감안하여 전통가옥을 중심으로 모주거리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만들고자한다. 문헌상에 나오는 노씨부인의 모주 터는 거로마을이지만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동선을 정했고, 오래 전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전통가옥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현재 상업 신설 예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활용한다면 부지선택의 문제와 마을 기업 경영측면으로 접근하기가 쉬어진다.

<그림 34> 상업 신설 예상지역 도면도(화북동 산업계 제공)

(3) 국제 전통주 페스티발 개최

모주를 모티브로 한 문화축제를 기획하였다. 전주 지방과 차별화하여 대신할 제주의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주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인 술의 문화를 앎으로서 올바른 음주 생활과 건강문화로 정착함은 물론 술의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로 관광도시로서의 상품화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면서 막걸리는 국제회의에 公式酒로 인기를 누리는 것도 사실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건전하고 건강에 무해한 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과 각 나라의 술의 교류는 더욱 제주도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은 마을 환경과 접목시켜 추진해 볼만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정리했다 <표 8>.

※ 국제 전통주 페스티발

・한중일 전통주 유명 브랜드를 참여시여 교류의 장과 비즈니스의 장소로 제주를 알린다.

・국내 유명 브랜드 회사를 초청하고 애주가를 모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모주 개념의 전통주를 개발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술을 홍보한다.

<표 8> 국제 전통주 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내용

축제명	국제 전통주 페스티발
카테고리	주요 내용
모주 전시 및 으뜸 전통주 시상	• 일정기간 전통주를 접수받고 술의 특이사항을 자료로 제출한다. • 컨셉 및 술의 의미, 그리고 재료와 성분 분석된 검증된 자료를 받는다. • 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모주를 심사하여 시상을 한다. • 심사기준은 토속성, 영양성, 상품성, 경제성, 스토리화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 심사방법은 사전 자료를 검토하고 행사기간 내에 전시와 직접 맛을 보고 결정한다. • 심사위원은 관련학과 대학교수 3명, 주류대표 5명, 기타 2명 총 10명으로 한다. • 1차와 2차에 걸쳐 순위를 정한다. (10월1일-7일 사이에 심사가 이루어짐-탐라문화제 기간 고려) • 시상식을 통해 심사평을 하고 상장과 상패, 상금을 수여한다.
제조과정 체험 및 전통주 판매	• 술을 빚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체험코너를 준비한다 • 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학습하는 코너를 준비한다. • 술을 만드는 다양한 재료에 대한 체험 및 실습을 한다. •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사진 전시 및 동영상 시청한다. • 각종 제례주와 전통주 판매(일반주는 고려)한다.
술 발전 방안과 관련한 학술세미나	• 관련학과 교수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개최한다. • 술과 인간과의 관계, 건강을 테마로 자료를 수집한다. • 술의 정의와 종류, 다양한 제조방법에 대한 토의한다. • 사회자 1명, 발제자 2명, 좌장 1명, 토론자 3명 총 7명으로 한다. • 사전 원고 수집 후 관련자료 모음집 발행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축제명	국제 전통주 페스티발
카테고리	주요 내용
인목대비 모주주안상 경연대회	• 후원: 제주시 화북동사무소 • 일시: 2014. 10. 1 - 10. 3 • 장소: 제주시화북동모주거리 • 목적: 토속적인 전통주로 창의적인 모주 개발생산 및 상품화 모주와 잘 어울리는 술안주 개발 및 상품화 • 심사기간: 행사당일부터 - 3일간, 마지막 날 주안상 제출(심사위원 평가) • 심사위원: 애주가 및 전문가 사전 공개 모집 (인터넷광고 및 홍보) 10명. 무료로 술과 안주를 마실 수 있는 권한 부여, 패스워드 제공. • 평가기준: 술과 안주의 궁합조화, 창조성, 경제성, 미시각 평가, 고객 모니터 자료. •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로 하여금 먹거리를 제공하고 모니터자료로 평가 • 소량의 술과 안주는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시 판매 무방 • 참가팀은 재료비 소액지원(팀별 지원) • 팀 구성은 3인 1조, 0팀으로 구성/ 우수팀은 상당 금액지원 • 전통주 개발 기회 부여 및 지원

국제 전통주 페스티발은 해마다 개최를 통해 제주시 화북동의 브랜드를 알리고 개발하여 세계시장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주거리는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된다. 동시에 제주의 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을 활용하여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마을을 알리고 정체성을 찾는 데에도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된다.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을 기업을 통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공간구성을 통한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앞서 진술하였지만 화북동은 마을 자체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동선을 어떻게 정하고, 문화유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마을 전체의 공간을 문화콘텐츠로 재구성할 수 있다. 공간구성의 재구성은 보이지 않는 스토리텔링의 구조인 기승전결이 완성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을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정서적인 남김으로 감성의 공간까지 차지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공간구성을 통한 문화재 활용을 위하여 마을에 오래 동안 거주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참고한 부분도 있다.

(1) 해신사의 해신제, 탐라순력도 기행 연계

제주목사가 도임하여 들어올 때는 화북포로 들어와 배를 대고 해신사에 열명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최근 2013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제주문화지킴이가 주관하는 2013 생생문화재사업 '신(新)탐라순력도 기행'은 제주시 제주목관아 일원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보물 제652-6호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조선 숙종 28년(1702년) 당시 탐라순력을 재현된다. 선조들이 귤 밭에서 풍악을 즐기던 '귤림풍악'과 과거시험을 보던 '승보시사', 경로잔치인 '제주양노' 등이다. 부대행사로 제주목사 도임 행차와 풍물패 공연, 전통무예 시연, 탐라순력도 그리기 대회 등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제주시 용담동 용연에서는 선조들이 배를 띄워 풍류를 만끽하던 '병담범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등 행렬과 용연작은 음악회 등이 선보였다.

"화북동은 제주목사가 부임하여 제주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탐라순력도를 재현할 때 화북동과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을 홍보와 함께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해신사는 옮긴 터라 바다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신사의 좌정 위치를 바꾸어서 본래의 위치를 찾고, 제주도가 관리하는 규모로 확대된 해신제가 되어야한다" 는 김대오 마을협의회장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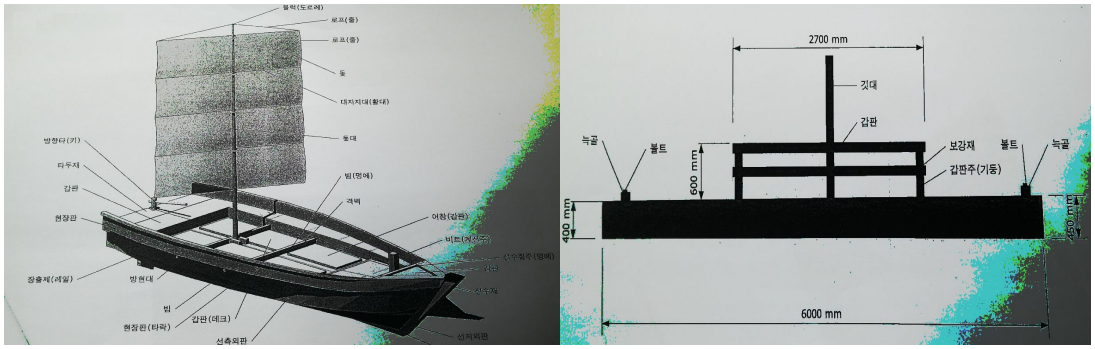
해신제를 지내는 날 외에는 현재 개방을 하지 않다. 18코스 개설 이후로 도보여행자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여행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해설사와 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터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가해져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만인의 해신사가 되어 누구든지 기원하는 기회를 주고, 공양함을 설치하여 모아진 성금은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한다. 앞으로 대규모의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본다면 해신사와 주변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2) 금산마을 조선소 개발과 낚배 재연

금산마을은 또 다른 포구로 곧을동과 주요 포구를 이어주는 마을이다. 조선소가 있어 정박하는 배를 수리하거나 만드는 기능을 해왔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조선소와 주변 해양 환경을 활용하여 전통배인 낚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통배 연구소나 어업기구 전시관 등을 마련하고 배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전수하여 장인[43]을 기르는 전수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35> 낚배 구상도[44]

43) 전통 테우·낚배(낚싯배)를 건조하는 기술로 허용행(현 78세)와 고범식(현 75세)가 보유하고 있다.

44)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제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35-1> 조선소와 전통테우·낚배 체험장

<그림 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항건설로 인해 화북의 입지조건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외항건설과 해안도로가 건설되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화북을 찾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금산마을의 조선소 개발과 낚배 재연은 문화를 전승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화북마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된다. 탈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레저 해양관광이 가능하다. 도보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낚배 정착장에서 포구를 감상하고 기후와 체험 코스에 따라서 삿대로 직접 배를 저어본다거나 엔진을 단 낚배를 타고 별도봉을 감상하면서 낚시까지 즐긴다면 충분히 체류형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곤을동 마을 조성과 함께 추진된다면 상호 연계 효과를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36> 제주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13.10

<그림 37> 바람과 어울리는 문화요소는 올레길과 해안도로를 도보여행이나 드라이브를 했을 때 시가 있는 등대 길에 가기까지 깃발을 세움으로서 제주의 바람과 어울리는 코스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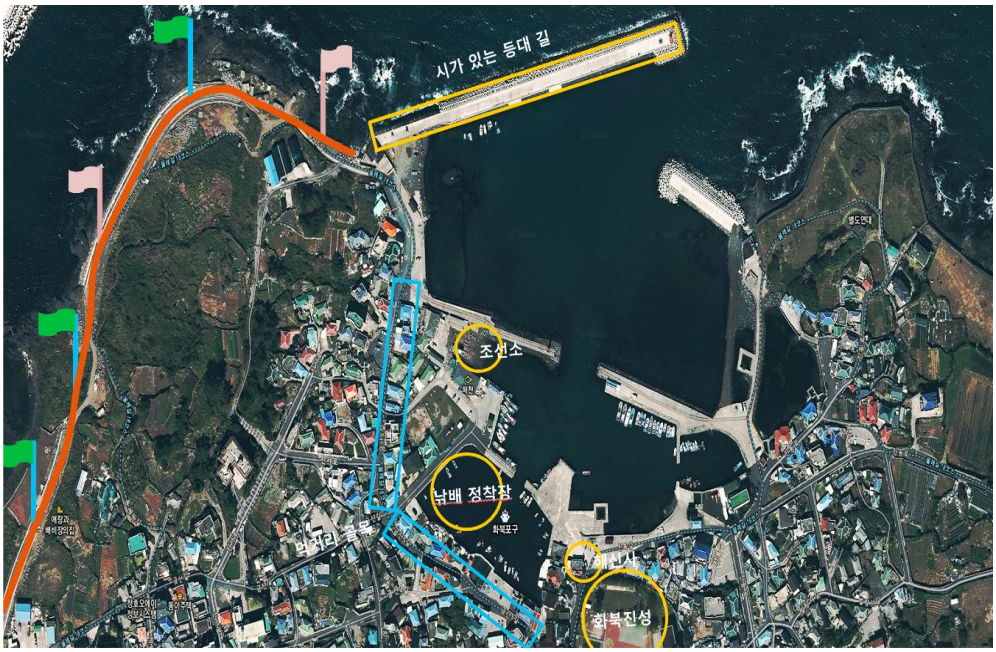
화북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군자, 문인서예의 작품과 규방공예에서 사용되는 염색 갈색천을 활용하여 전시함으로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적극 높이는 효과를 본다. 제주의 특수성을 가지고 문화프로그램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그냥 스쳐가는 길이 아닌 잠시 머물면서 시가 있는 등대 길에서 제주목사들이 남긴 글과 그림을 감상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37> 바람과 어울리는 문화요소(사군자와 염색 갈색천)

현재 포구를 중심으로 횟집을 형성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상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제주음식을 소재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회국수나 메운탕, 갈치조림 등 제주의 맛과 토속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행의 재미다. 먹거리는 그 지역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요소로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37-1> 곤을동에서 시가 있는 등대 길 가는 코스

(3) 환해장성을 중심으로 한 체험 현장

곤을동 마을을 지나 시가 있는 등대 길에서 다시 포구 안으로 들어오면 해신사와 화북진성을 감상하고 바다를 따라 용천수를 접하면서 환해장성과 별도연대의 코스가 된다<그림 38>.

<그림 38> 화북포구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용천수 일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38-1> 포구와 환해장성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오래전 건물들과 신건물들이 융합된 마을이여서 조금은 벽화를 통해서 이야기 있는 퓨전마을로 변모해보는 것도 볼거리가 된다. 마을벽화 하나만으로도 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져 그 마을을 찾는 경향이 많다. 울산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은 고래가 유명한 것을 주요 콘셉트로 마을 전체를 스토리텔링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화북동은 마을이 갖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와 이미 멸실되었으나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 신당과 같은 이야기 중심으로 벽화를 구성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또 다른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문화재를 유지하는데 방법이 된다. 옛것을 지키면서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측면에서도 접근한다면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마을이 된다<그림 3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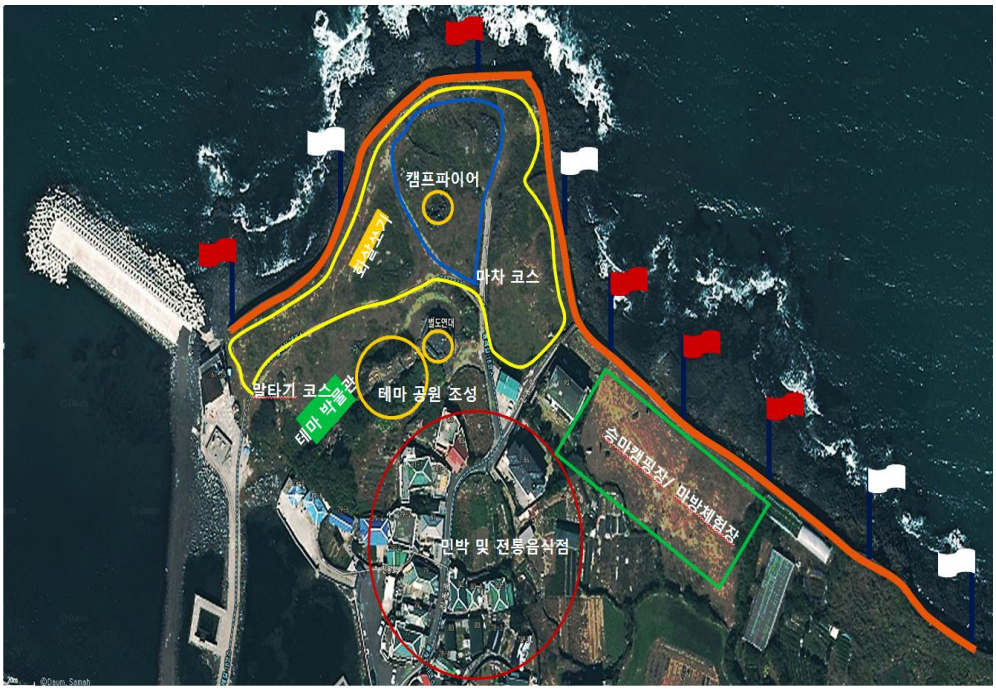
<그림 39> 벽화를 통한 퓨전 환경 만들기(오른쪽 예시)[45]

환해장성은 복원한 것으로 옛 성의 모습은 마을을 조금 벗어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커서 환해장성 내부를 빈 공간으로 방치하기에는 관리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환해장성 내부를 활용하여 현장체험이나 견학할 수 있는 문화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환해장성은 복원되어 옛 모습을 가깝게 살펴볼 수 없다. 현재 환해장성을 중심으로 환해장성 지킴이 군사시설 설치하여 군사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살려 청소년들에게 체험현장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의 돌을 활용하여 돌집 테마파크를 설치하여 군사적인 정보와 해양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위인들의 업적과 군사기구를 동시에 전시하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인 체험의 현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주의 특수성과 군사마의 복원 등을 고려하여 마방 체험 등은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자산이 되며, 일선학교의 수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체험현장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0>.

45) http://image.search.naver.com, http://blog.naver.com/soseektory 벽화마을 탐색.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40> 환해장성 체험현장 이미지

이를테면, 교육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쏘기, 봉화대 횃불 돌리기, 북치기, 깃발 세우기, 깃발(연)날리기, 말 타기, 마차 타고 돌(짚) 옮기기, 돌로 봉화대 쌓기, 대포 쏘기, 군장 옷 입어보기, 말 똥 거두기, 말 밥 주기와 같은 마방 체험, 전통음식 먹기, 야외 캠프파이어, 야간 영화보기, 텐트치고 잠자기, 미니 대포 만들기, 새총 만들기, 땅따먹기 놀이, 팽이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등 전통 놀이도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사진 찍어가기, 인터넷 자료 올리기 등 다양한 놀이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면 오래 머물게 되고, 화북마을을 좀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현장이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론

화북 마을의 문화자원과 관광콘텐츠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검토해보기위해서 화북 마을의 입지조건과 문화자원 현황 등을 살펴봤고, SWOT분석을 통해 장단점과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등도 알아보았다.

화북동 주민들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경제 환경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의 소실, 대기오염, 소음과 진동의 여부, 친환경적 자원 순환, 토지이용과 산업 등에 대한 갈등을 해결한다면 자연요소를 최대한 살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화북마을의 강점인 친수 공간을 활용한 해양공원화 및 야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시민의 여가 증진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곤을동 마을과 용수천 활용, 그리고 공간 구성에 따른 활용에 대한 제안을 했다. 그리고 지역자원을 특성화한 명소・명품 만들기 등 장소 마케팅 전략을 위해 새로운 상업지역과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제안함으로서 기회의 요소를 좀 더 구체화 하였다.

또한 약점과 강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문화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소에 배치함으로서 자긍심과 문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동선을 제안하였다.

현재 화북동(김영호 동장)은 지난 8월부터 <화북동 마을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사시대부터 근대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의 마을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화북마을의 역사·민속·건축문화유산 조사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제안에 따른 실천과 마케팅전략을 통해 화북마을을 더욱 드러내고, 자연환경, 문화유산, 경제적 가치를 모두 융합할 수 있는 도심 속 문화마을인 화북마을을 기대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정창권,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2008.

김정희,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콘텐츠 기획』,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김의숙·이창식,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8.

박진규·정철상, 『지역문화와 축제-기획과 연출』, 글누림 문화콘텐츠 총서 9, 2005.

전충헌, 『문화콘텐츠 전략기획론』, 전주대학교 문화산업 총서 4, 2009.

이정학, 『문화관광의 이해』, 대왕사, 2011.

서동훈·김효정,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삼성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43집, 2009.

김기국,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김정미, 『미디어에 따른 스토리텔링의 의미변화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오지헌·김억,『건축설계를 위한 '연속적 공간'과 인간의 공간지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

신동일, 『스토리텔링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도, 제주4·3연구소의『제주 4· 3유적 I』, 2003.

정승훈, 제주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3.

정태관, 『관주시, 민관합동정책워크숍 분과별 정책제안 보고회 개최』, 광주신문, 2013.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 제주시』, 19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관광과 구도심지 상권 연계방안 연구』, 2007.

제주특별자치도, 『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2008.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의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2008.

화북동운영위원회, 『화북동향토지』, 1991.

화북동사무소, 『더불어 사는 화북』, 종합문화기획 떼송, 2004.

화북초등학교총동창회, 『화북교80년사』, 선진인쇄사, 2007.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화북동주민센터,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자료집』, 2009.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화북동주민센터, 『화북동 역사·문화 장기발전계획』, 2009.

제주문화예술재단, 『도지정기념물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주변 문화유산 활용계획수립안 제1차 주민설명회』, 2011 .8.

제주문화예술재단, 『도지정기념물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주변 문화유산 활용계획수립안 제2차 주민설명회』, 2011. 1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시, 제주문화예술재단, 『도지정기념물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주변 문화유산 활용계획수립보고서(요약본)』, 2011.
제주시화북동주민센터,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제주시 화북동 UCC・스토리텔링 공모전 스토리텔링 수상 작품집』, 2012.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13 .10.
http://www.jejutour.go.kr/
http://www.jejuolle.org/
http://jejuhistory.co.kr/index.php
https://www.jdi.re.kr/
http://www.jeju.go.kr/
http://www.jejusi.go.kr/contents/index.php?mid=45
http://map.daum.net/
http://www.newsis.com/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2063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474
http://www.culture.go.kr/
https://www.google.co.kr
http://image.search.naver.com
http://blog.naver.com/soseekto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Study on Development Plan Research of Hwabuk-dong, Jeju, by Storytelling Strategy

Noh, Mi kyeong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Pedagogy

Jeju National University

Thesis Director, Jin-Geon, Yang

Hwabuk in Jeju city is a historic village with various cultural assets. It had been the gateway to link Jeju and the mainland of Korea.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can be seen on the port and Jeju *moksa*(governors) and exiles came through the port from the mainland .

Living heritage and cultural assets including Hwabukjinseong fortress, the port, Haesinsa temple, ruins for defence, memorial stones for honoring *moksa*'s achievements reflect it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his paper focuses on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Hwabuk-dong by tracing its history and culture back through time and finding ways to preserve its culture by developing cultural contents.

Even if it's not easy, steps are needed to preserve the village's culture in harmony with nature in the downtown area. For this its nature-friendly elements and about 20 designated and un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can be utilized. Because we should hand well-preserved culture down to our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escendants.

This paper closely looks at Hwabuk-dong and its residents efforts such as the long-time development plan and the Hwabukjinseong fortress development proposal. Finally, it suggests development plans for full-of-cultural content c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